

Max Frisch의 「Homo faber」연구— 형식과 주제성을 중심으로

김 희 열*

목 차

I. 「Homo faber」의 성립과정과 소재	III.2.1 Hanna
II. 줄거리 구성과 서술태도	III.2.2 Ivy
I.1 줄거리 (Handlung)의 연대기적 순서	III.2.3 Sabeth
II.2 플롯 (Fabel)의 서술 순서	IV. 대립적 삶의 영역
II.2.1 "Erste Station" (첫번째 체류지)	IV.1 기술과 운명
II.2.2 "Zweite Station" (두번째 체류지)	IV.2 개연성과 우연
II.3 서술태도	V. Faber의 인식 변화
III. 주인공 Walter Faber의 허상	V.1 죽음에 대한 예감
III.1 기술자로서의 인간 Faber	V.2 Faber의 인식 변화
III.2 Faber의 여성 관계	

I. 「Homo faber」의 성립과정과 소재

1955년 초 Max Frisch는 그의 아내 Constanze와 헤어져 Zürich 근교에 있는 Männedorf에 이사를 해서 그 해 말경 「Homo faber」 집필에 들어갔다. 1956년 6월과 7월의 미국여행 체험이 Frisch의 후기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Frisch는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 (국제디자인 회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약어>

Hf : Homo faber, in : Max Frisch : Gesammelte Werke, Bd.4, Frankfurt/M. 1986.

GW 6 : Gesammelte Werke, Bd.6

GW 2 : Gesammelte Werke, Bd.2

의)에 초대되어 Colorado의 Aspen에서 도시건축 문제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그는 미국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며칠간 Rom과 Neapel에 머물렀고 Neapel에서 뉴욕으로 배를 타고 갔다. Max Frisch는 Werner Koch와의 인터뷰에서 그 선박여행이 흥미로웠음을 밝히고 있다.

Ich habe große Erfahrung mit der Schiffsreise—es war für mich eine große Erfahrung, die ersten Überfahrten nach Amerika.¹⁾

Frisch는 Aspen에서 San Francisco, Los Angeles와 Mexico City를 방문하였다. 이 도시들은 1952년 Frisch가 맨처음 미국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곳들이기도 하다. 이 곳들을 지나 Yucatan과 Habana를 방문하였다. Frisch는 7월말경 Männedorf로 돌아와서 중단되었던 「Homo faber」 집필을 1957년 2월까지 속행하였다.

Frisch는 그 해 5월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Korinth와 Athen을 방문하였다. 이 그리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 Frisch는 다시 2달간 「Homo faber」를 수정하여 8월 12일 마지막 수정 작업을 끝내서 10월에 Suhrkamp 출판사에서 이 작품이 출간되었다. Frisch가 Peter Suhrkamp에게 보낸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서 이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변형되면서 수정되어 완결본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나온 후 1959년 Lausanne 시는 Max Frisch에게 Charles-Veillon상을 수여하였다.

이 소설에는 1951/52년 미국 체류동안 얻은 Frisch의 인상과 1956년 두번째 미국 여행에서 얻은 체험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발상은 193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으며 개인적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933년 Frisch는 Berlin 출신 유대인 Käte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Schweiz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으나 Käte는 Frisch의 결혼 제의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한다. 그러나 Frisch에게 있어서 Käte와의 관계는 진실하고 진지한 의미를 지녔었다: "Immerhin war die Beziehung zu Käte seine erste ernsthafte und stetige Bindung."²⁾

Frisch는 그의 「Tagebuch 1966~1971」과 특히 「Montauk」에서 그의 유대인여자 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다.

Die jüdische Braut aus Berlin (zur Hitler-Zeit) heißt nicht HANNA, sondern Käte, und sie gleichen sich überhaupt nicht, das Mädchen in meiner Lebensgeschichte und die Figur in einem Roman, den er geschrieben hat (...) Sie ist meine erste Partnerin: wir wohnen nicht zusammen, aber wir treffen uns jeden Tag. Sie ist Studentin (...) Sie möchte ein Kind, und das erschreckt mich; ich bin ja unzufertig dazu, als Schreiber gescheitert und am Anfang einer andern Berufslehre, um kein Taugenichts zu bleiben (...) Dann bin ich bereit zu heiraten, damit sie in der Schweiz bleiben kann, und wir gehen ins Stadthaus Zürich,

1) Werner Koch: Selbstanzeige. Max Frisch im Gespräch. Köln: Westdeutsches Fernsehen, Sendung von 15.10.1970.

2) Volker Hage: Max Frisch, Hamburg 1984, S. 287.

Zivilstandesamt, aber sie merkte es : das ist nicht Liebe, die Kinder will, und das lehnt sie ab, nein das nicht. (GW 6, 727)

이러한 Frisch 자신의 체험이 「Homo faber」의 주인공 Walter Faber와 Hanna와의 관계에서 같은 모티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Faber가 Hanna와 결혼하려고 시청으로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녀를 찾으러 나온 Faber에게 그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의 서술은 바로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상황과 유사하다.

Es war die Zeit, als die jüdischen Pässe annulliert wurden. Ich hatte mir geschworen, Hanna keinesfalls im Stich zu lassen, und dabei blieb es (...) Die Sache eilte, da ich meine Stelle in Bagdad anzutreten hatte. Es war ein Samstagvormittag, als wir endlich (...) ins Stadthaus gingen, um die Trauung zu vollziehen. (...) Als endlich der Standesbeamte uns rief, war Hanna nicht da. Wir suchten sie und fanden sie draußen an der Limmat, nicht zu bewegen, sie weigerte sich in das Trauzimmer zu kommen. Sie könne nicht / (Hf, 56~57)

아울러 결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Frisch의 개인적 체험이 「Homo faber」에서 구체화되기 이전 일일칭 산문 「Kalendergeschichte」에서 그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Hanna도 Käte도 아닌 Anja이다.

: wir hatten einander wirklich lieb; meine Verdienste im Feld, der plötzliche Tod unseres Vaters, das überraschende Angebot seiner herzoglichen Durchlaucht, die mich zum Botschaften erkor, das alles hatte ich Anja erklärt (...) - ich erklärte ihr eindringlich genug, wie unsinnig es unter diesen Umständen wäre, das Kind zur Welt zu bringen (...) und das einzige, was sie einwendete, war natürlich der liebe Gott, der stets die letzte Karte ist, wenn man keine Gründe mehr weiß. (GW 6, 727)

「Kalendergeschichte」에서 주인공은 직업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만 Anja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오직 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태아를 존중한다. 이러한 Anja의 종교적 입장이 「Homo faber」의 Hanna에게서는 “신비로운 것으로 쏠리는 경향 Hang (...) zum Mystischen” (Hf, 47) 으로 나타난다. Hanna는 임신중절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동의하지도 않는다. 이에 비해서 Faber는 생명의 문제조차도 기술 세계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Faber는 신 대신에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 Max Frisch는 이러한 주인공을 자신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의 한 전형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Dieser Mann lebt an sich vorbei, weil er einem allgemein angebotenen Image nachläuft, das von <Technik>. Im Grunde ist der <Homo faber>, dieser Mann, nicht ein Techniker, sondern er ist ein verhinderter Mensch, der von sich selbst ein Bildnis gemacht hat, der

sich ein Bildnis hat machen lassen, das ihn verhindert, zu sich selber zu kommen.³⁾

즉 Faber는 자신에 대한 허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그 허상에 따라 판단하는 "막혀있는 인간" (verhinderter Mensch)이다. 이러한 인간의 전형은 이미 「"Kalendergeschichte"」의 주인공의 자세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는 Anja가 그 당시 그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본다.

Daß Anja noch lebte und daß sie ihr Kind, das ich damals nicht haben wollte, dennoch geboren hätte, es war möglich, gewiß, aber nicht wahrscheinlich, und ich konnte es eigentlich nicht glauben. (GW 2, 461)

여기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해서 「Homo faber」에서는 Faber가 Hanna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리라는 생각조차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Faber는 그 개연성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점에서 Faber가 「Kalendergeschichte」의 주인공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

II. 줄거리 구성과 서술태도

「Homo faber」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의 주인공 Walter Faber는 Zürich 공과 대학의 연구조교 시절에 예술사를 전공하는 반유대인(Halbjudin) Hanna Landsberg를 알게 된다.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나치시대에 Hanna는 Faber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Faber는 직업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Faber는 Hanna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녀와 결혼하려고 결심하지만 Hanna는 이에 반대한다. Faber의 마지막 결혼 시도는 시청에서 결혼식과 결혼 서류를 작성하려는 시점에서 Hanna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좌절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Faber는 예정된 새로운 직업 계약에 따라서 Bagdad로 떠나게 된다. 그 이후 Faber는 Hanna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Walter Faber는 엔지니어로서 Unesco의 발전원조계획 실천에 따라 Caracas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타는 것으로 부터 소설은 시작되고 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열좌석 승객 Herbert Hecke를 알게 되고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멕시코 사막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날 Herbert와 사귄 시간이 주어진다. Herbert는 Faber의 젊은 시절 독일인 친구 Joachim Henke의 동생이었고 그를 통해서 Joachim과 Hanna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Hanna는 Faber의 딸을 낳았고 Joachim과도 헤어져 영국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공산주

3) Hg. Rudolf Ossowaski: Max Frisch. In: Jugend fragt — Prominente antworten, Berlin: Colloquium 1975, S.121.

의자 Piper와 다시 결혼했으나 결국 그와도 헤어진다. 그러다가 Hanna는 그리스 아테네의 박물관에서 고고학자로서 일하고 있다.

Faber는 Herbert가 그의 형 Joachim을 만나러 콰데말라로 가는데 동행한다. 그들은 콰데말라 담배 농장 오두막에서 자살한 요아힘을 발견한다. Herbert는 그 곳에 남아서 형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고 Faber는 Caracas로 갔다가 다시 New York으로 돌아온다. 뉴욕 공항에는 Faber의 미국인 여자친구 Ivy가 마중나와 있다. Ivy는 1주일간 맨하탄에서 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Faber는 Ivy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들연 다음 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다. 선상에서 Faber는 Hanna의 딸 Elisabeth(Faber는 그녀의 이름을 줄여서 Sabeth라 부르고 Hanna는 Elisbeth라고 부름)를 만난다. Sabeth는 Yale 대학 장학금으로 6개월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간 아테네에 있는 어머니 Hanna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Faber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못한 채 그녀와 사귀게 되고 배가 Le Havre에 하선하기 전날 밤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 하선해서 헤어지고 난 후 Faber는 파리 Louvre박물관에서 Sabeth를 다시 만나서 함께 남프랑스와 이태리를 지나 그리스로 휴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Elisabeth는 그의 애인이 된다. Korinth 근처 해변가에서 Sabeth는 뱀에 물려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죽는다. Faber는 아테네의 한 병원에서 Hanna를 다시 만나게 된다.

Faber는 Sabeth가 죽은 다음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Caracas로 간다. 그가 그리스로 올 때 거쳤던 지역들을 반복해서 지나 다시 그리스로 오게 된다. 이미 Faber의 위암은 이 소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터 암시적으로 가벼운 증세들이 나타났으나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그가 위암에 걸렸음을 알게 되어 결국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테네로 돌아와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나고 있다.

II. 1 줄거리 (Handlung)의 연대기적 순서

그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933년에서 1935년 까지 Faber는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조교생활을 했고 이 때 Hanna를 사귀게 된다. 1935년 Faber는 Hanna와 결혼하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좌절된다.
- 2) 1936년 Faber는 Hanna와 작별한다. 1937년 경에 Hanna는 Joachim과 결혼하고 Elisabeth가 태어난다. 얼마 후 Hanna는 Joachim과 이혼해서 1938년 Paris에 머문다.
- 3) 1941년 경에 Hanna는 영국으로 망명해서 지내다가 Piper와 결혼해서 생활한다.
- 4) 1946년 부터 Faber는 Unesco에서 일하게 되어 New York에 거주하고 이 때 Ivy를 사귄다.
- 5) 1953년 Hanna는 Piper와 헤어져 아테네로 가서 그 곳 박물관에서 일한다.
- 6) 1956년 Sabeth는 Yale대학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머문다.

(이 이후의 줄거리의 시간적 구성은 1957년 4월 2일부터 7월 19일 아테네 병원에서 수술직전까지이다.)

- 7) Faber는 1957년 4월 1일 뉴욕에 있는 La Guardia 공항으로 부터 Caracas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공항에 Ivy가 나와서 그를 전송한다.
- 8) 4월 2일에 중간 기착지 휴스턴에 착륙한다.
- 9) 4월 2일부터 5일까지 Lockheed Super-Constellation (DC-7) 비행기가 멕시코의 Tamaulipas 사막에 불시착해서 3일간 체류한다.
- 10) 4월 6일에서 9일까지 : Campeche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Palenque로 기차를 타고 떠난다.
- 11) 4월 10일에서 15일까지 Palenque에 체류한다.
- 12) 4월 15일 Palenque에서 차를 타고 Joachim이 살고 있는 Guatemala 농장으로 떠난다. 그의 오두막에서 Joachim이 자살해 있음을 목격하고 그의 장례를 치른 후 Palenque로 돌아온다.
- 13) 4월 18일에서 20일 : Caracas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 14) 4월 21일 : Faber는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 Ivy가 마중나와 있다.
- 15) 4월 22일부터 30일 : Faber는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리의 Le Havre까지 여행한다. 이 여행 중에 그는 Sabeth를 만나 사귀게 되고 자신의 50번째 생일날 4월 29일 그녀에게 구혼한다.
- 16) 5월 1일부터 5월 12일 : Faber는 파리에 머무르면서 Sabeth를 만나 그녀와 함께 Louvre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서 이태리, 그리스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 17) 5월 13일 : Sabeth와 아비농에서 함께 숙박을 하고 계속해서 이태리 여행을 한다.
- 18) 6월 1일 Akrokorinth에 머문다. 해변가에서 Sabeth가 뱀에 물려 쓰러진다. 6월 3일 Sabeth는 아테네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 19) 6월 4일 Faber는 Hanna와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Akrokorinth로 간다. 이날 Sabeth가 죽는다.
- 20) 6월 8일 뉴욕으로 간다.
- 21) 6월 9일 Faber는 뉴욕에서 Caracas로 떠난다. 도중에 Merida에서 여행을 중단하고 Guatemala에 있는 농장으로 Herbert를 만나러 간다.
- 22) 6월 20일에서 7월 8일까지 Faber가 Caracas에 체류하는데 그는 위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
- 23) 7월 9일에서 11일까지 Cuba의 Habana에 체류한다.
- 24) 7월 15일 Faber는 Düsseldorf에서 Sabeth와 함께 여행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본다.
- 25) 7월 16일 Zürich에 머문다.
- 26) 7월 18일 Athen으로 돌아온다.
- 27) 7월 19일 Faber는 아테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며 그의 삶의 마지막 보고문을 쓴다.

II. 2 플롯 (Fabel)의 서술 순서

II .2.1 "Erste Station" (첫번째 체류지)

1) 뉴욕의 La Guardia 공항에서 Faber는 Ivy와 작별하고 비행기 안에서 열좌석에 앉은 젊은 독일인을 알게 된다. (현재의 줄거리)

Wir starteten in La Guardia, New York, mit dreistündiger Verspätung infolge Schneestürmen (...) Ivy hatte drei Stunden lang, während wir auf die verspätete Maschine warteten (...) er kam aus Düsseldorf, mein Nachbar, und so jung war er auch wieder nicht, anfangs Dreißig, immerhin jünger als ich. (Hf, 7-8)

2) Houston에서 Faber가 탄 비행기는 중간 기착을 하고 Faber는 여행의 무력감을 느껴서 갑자기 여행을 중단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승무원의 눈에 띄어서 Caracas로 가는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간다: "Ich folgte ihr (...) mit allerlei Ausreden, die nicht interessierten, hinaus zu unsrer Super-Constellation." (Hf, 13) 또 비행기 안에서 열좌석 승객 독일인 Herbert가 용무상 Guatemala에 있는 담배 농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재의 줄거리)

3) Faber는 비행기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이 들면서 꿈을 꾸다. 이 꿈은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Vgl. Hf, 15-16)

4) Faber와 다른 승객들이 탄 비행기가 멕시코 Tamaulipas에 비상 착륙한다: "Unsere Super-Constellation stand etwas vornüber gekippt, nicht schlimm, nur das vordere Fahrgestell war gestaucht, weil eingesunken im Sand, nicht einmal gebrochen." (Hf, 21)

5) Faber의 독백으로 앞으로 있게 될 Hanna와의 재회, Faber가 Elisabeth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고한다: "ich hätte diesen jungen Hencke nicht kennengelernt, ich hätte vielleicht nie wieder von Hanna gehört, ich wüßte heute noch nicht, daß ich Vater bin (...) Vielleicht würde Sabeth noch leben." (Hf, 22)

6) 승객들은 며칠간 멕시코 Tamaulipas 황무지에 체류한다. 이곳에서 Faber는 Ivy에게 작별 편지를 쓴다: "(...) schrieb ich ihr (zum Glück mit Durchschlag) deutlich genug, so meinte ich, um uns ein Wiedersehen zu ersparen." (Hf, 31)

Faber는 Herbert가 그의 젊은 시절 친구 Joachim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몇달간 연락이 끊기기는 했으나 그가 과테말라 농장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현재의 줄거리)

〈Joachim?〉 sagte er, 〈das ist mein Bruder.〉

〈Nein!〉 sagte ich-

〈Ja〉, sagte er, 〈natürlich - ich erzählte Ihnen doch, daß ich meinen Bruder in Guatemala besuche.〉 (...)

〈Wir sind besorgt〉, sagte er -

〈Wieso?〉

〈Er ist der einzige Weiße da unten〉, sagte er, 〈seit zwei Monaten keinerlei Nachrichten〉.
(Hf, 25-26)

7) Faber는 Herbert와 대화하면서 Hanna와 Joachim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회상)

〈Ist Joachim denn nicht mehr verheiratet?〉
〈Nein〉, sagte er.
〈Geschieden?〉
〈Ja〉, sagte er. (…)
〈Wen hat er denn geheiratet?〉 (…)
〈 - Hanna Landsberg, Munchnerin, Halbjudin.〉 (Hf, 28)

8) Faber는 독백으로 옛날 일을 회상한다. 1933년에서 1935년 취리히 대학의 조교 시절에 경제적 사정으로 그는 Hanna와 결혼할 수 없었고 그녀도 그 당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낸다. (Vgl. Hf, 33)

9) Faber는 그의 업무여행을 중단하고 Herbert를 따라서 농장으로 가려고 결정한다. Campeche에서 비행기를 내려 그 곳에서 기차를 타고 Palenque로 가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월요일에는 기차가 없고 화요일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은 열대 기후의 도시 Campeche에서 Palenque로 떠난다. (현재의 줄거리)

Mein Entschluß, eine Dienstreise einfach zu ändern und einen privaten Umweg über Guatemala zu machen, bloß um einen alten Jugendfreund wiederzusehen, fiel auf dem neuen Flugplatz in Mexico-City. (Hf, 33)

10) Faber는 Herbert와 대화하면서 Joachim과 Hanna가 이혼했고,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대화, 회상)

〈Warum sind sie eigentlich geschieden?〉
〈Weiß ich nicht〉, sagte er (…)
〈Haben sie denn Kinder?〉 fragte ich.
〈Eine Tochter -〉 (Hf, 35-36)

11) Faber와 Herbert는 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5일간 Palenque에 체류하다가 미국인 음악가 Marcel과 사귀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호텔 주인의 차를 빌려타서 Guatemala로 떠난다. Marcel은 Guatemala에 Maya 유적이 많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동행한다. (현재의 줄거리)

Das Wunder geschah, als unser Ruinen-Freund hörte, daß wir hinüber nach Guatemala müßten (…)
und wenn wir ihn mitnahme, wollte er alles versuchen, um den Landrover zu bekommen, (…)
und er bekam ihn. (Hf, 44-45)

또 Faber는 위의 고통을 어렴풋이 느낀다: "Ich spürte meinen Magen." (Hf, 42)

12) Faber는 Hanna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다. 그 당시 그는 Hanna와 결혼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던 이유들과 실제로 한나에게 청혼하지만 그녀가 거절했고 바로 그 후 그는 엔지니어로서 Escher-Wyss 회사의 첫 근무지 Bagdad로 떠나게 된다. (Vgl.45-48)

13) Faber는 Herbert와 Marcel과 함께 농장에 도착한다. 그들은 농장 오두막에서 자살한 Joachim의 시체를 발견하고 묻는다: "Er hatte es mit einem Draht gemacht (...) Wir fotografierten und bestatteten ihn." (Hf, 55) Herbert는 Joachim을 대신해서 농장을 돌보려고 그곳에 남고 Faber와 Marcel만 Campeche로 돌아온다. (현재의 줄거리)

Herbert als Vertreter und Neffe der Hencke-Bosch GmbH., der diese Felder gehörten, übernahm die Verantwortung und das Steuer. (...) die Indios (...) befolgten jede Anweisung von Herbert, (...) und anerkannten Herbert sofort als ihren nächsten Herrn. (Hf, 55)

14) Faber의 독백으로 그의 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로서 Hanna와 Joachim이 왜 결혼을 했으며 또 그의 딸이 출생을 왜 그에게 비밀로 하였는지 의아해한다: "Es ist mir heute noch ein Rätsel, wieso Hanna und Joachim geheiratet und wieso sie mich, Vater des Kindes, nie haben wissen lassen, daß dieses Kind zur Welt gekommen ist." (Hf, 56)

15) 같은 상황에 대한 Faber의 반복 회상으로서 Faber는 유태인 여권이 말소되던 시기에 Hanna와 결혼하려고 결심했으나 Hanna가 거절하였고 Hanna는 그들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Faber를 Bagdad로 떠나 보낸다. 그 이후 그는 Hanna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다.

Hanna hatte versprochen, nach meiner Abreise sofort zu Joachim zu gehen, der seine ärztliche Hilfe angeboten hatte (...) Später hörte ich nie wieder von ihr. Das war 1936. (Hf, 57)

16) Faber는 콰테달라 농장에서 Palenque로 돌아와 Caracas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곳에 잠시 체류했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다. Ivy가 공항에 그를 마중나와 있다. (현재의 줄거리)

Meine Aufenthalt in Venezuela (...) dauerte nur zwei Tage (...) 20.IV. Abflug von Caracas. 21.IV. Ankunft in New York, Idlewild. Ivy stellte mich an der Schranke, sie hatte sich erkundigt, wann ich ankomme. (Hf, 57)

뉴욕 도착 다음날 Faber는 Ivy와 헤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고 결심한다: "und mein plötzlicher Entschluß, nicht zu fliegen wie üblich, sondern morgen schon mit dem Schiff zu reisen, um in einer Woche auch in Paris zu sein, war ein Strich durch ihre

Rechnung." (Hf, 60)

17) Faber의 짧은 독백으로 유럽으로 가는 선상에서 자신의 딸과 우연하게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 "meine Schifffreise wäre nicht zustande gekommen, jedenfalls nicht mit dem Schiff, das Sabeth benutzte, und wir wären einander nie auf, der Welt begegnet, meine Tochter und ich." (Hf, 63-64)

18) 배표를 사고 돌아와서 Faber는 Ivy와 함께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유럽으로 출발한다: "Eine Stunde später saß ich in einer Bar, meine Schiffskarte in der Tasche, unten am Hudson, vergnügt, nachdem ich unser Schiff gesehen hatte." (Hf, 64) 떠나면서 Faber는 Ivy에게 그의 뉴욕집 열쇠를 주면서 잔 일을 부탁한다. (현재 줄거리)

19) Faber는 Marcel의 의견대로 Joachim의 시체를 화장하는 편이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고 또 쉬지 않고 Marcel과 함께 차를 타고 Palenque로 돌아오던 때를 회상한다: "Wir hätten Joachim (...) nicht in die Erde begraben, sondern verbrennen sollen. Aber das war nun nicht mehr zu ändern. Marcel hatte vollkommen recht." (Hf, 68)

20) Faber는 배의 선상에서 차림새가 두드러진 Sabeth가 눈에 띈다는 것을 느낀다. (현재 줄거리)

: ein junges Mädchen in schwarzen Cowboy-Hose, kaum kleiner als ich, Engländerin oder Skandinavierin, ich konnte ihr Gesicht nicht sehen, nur ihren blonden oder rötlichen Roßschwanz, der bei jeder Bewegung ihres Kopfes baumelte. (Hf, 70)

21) Faber의 독백으로 그가 자신의 아이의 삶을 파괴했다는 미래의 일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Ich habe das Leben meines Kindes vernichtet und ich kann es nicht wiedergutmachen." (Hf, 72)

22) 선상에서 Faber는 Sabeth를 알게 되어서 대화를 나눈다. Faber는 Sabeth가 Autostop으로 로마를 지나 아테네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는 계획을 알게 된다. 선상에서 Faber는 하선하기 전날 저녁 Sabeth에게 구혼을 하고 그들은 Le Havre에 하선해서 작별한다. 여기서는 Sabeth가 Hanna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었다면 Faber가 그녀를 자신의 딸로 대하였을 것이라는 미래 암시의 귀결이 들어있다.

Wieso vermuten, daß irgendein Mädchen, das Elisabeth Piper heißt, eine Tochter von Hanna ist. Hätte ich damals auf dem Schiff (oder später) auch nur den mindesten Verdacht gehabt, es könnte zwischen dem jungen Mädchen und Hanna, die mir nach der Geschichte mit Joachim begreiflicherweise durch den Kopf ging, ein wirklicher

Zusammenhang bestehen. (Hf, 80)

아울러 Faber는 Sabeth와 함께 이태리 여행을 하고 그녀가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을 예감치 못했다: "Ich habe damals nicht einen Augenblick daran gedacht, daß wir zusammen nach Rom fahren würden, Sabeth und ich, der in Rom nichts verloren hatte." (Hf, 90)

또 Faber는 Ivy와의 관계를 회상한다: "Wenn ich Ivy umarmte und dabei denke: Ich sollte meine Filme entwickeln lassen, Williams anrufen! Ich könnte im Kopf irgendein Schach-Problem lösen, während Ivy sagt: I'm happy, O Dear, so happy, o Dear!" (Hf, 94)

이 부분에서는 반성과 후회에 찬 미래의 일에 대한 암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병의 증세에 대한 간접적 암시와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이 서로 뒤엉켜 묘사되고 있다.

23) Faber가 맨처음 관계를 맺은 부인에 대한 회상이 서술되고 있다.

Meine erste Erfahrung mit einer Frau, die allererste, habe ich eigentlich vergessen, das heißt, ich erinnere mich überhaupt nicht daran, wenn ich nicht will. Sie war die Gattin meines Lehrers, der mich damals, kurz vor meiner Maturität, über einige Wochenenden zu sich ins Haus nahm. (Hf, 99)

24) Faber는 파리의 Louvre 박물관에서 Sabeth를 다시 만나고 결국 그녀와 함께 남불란서와 이태리를 여행하려고 결심한다. 그리고 파리에서 Faber는 그의 대학시절 존경했던 Professor O.를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다. (현재 줄거리)

Ich hatte Professor O. wirklich nicht erkannt, wie er da plötzlich vor mir steht: Wohin denn so eilig, Faber, wohin denn? Sein Gesicht ist nicht einmal bleich, aber vollkommen verändert; ich weiß nur: Dieses Gesicht kenne ich. (Hf, 102)

25) Faber는 Sabeth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남편 Piper와 헤어져 아테네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성적인 부인이라고 추측한다: "Ich erfuhr: sie hat eigentlich nicht Archäologie studiert, sondern Philologie: sie arbeitet aber in einem Archäologischen Institut, sie muß ja Geld verdienen, weil von Herrn Piper getrennt -" (Hf, 112)

그들은 계속해서 Via Appia로 여행하고 그곳의 어느 무덤가에서 휴식을 취한다: "Wir waren die Via Appia hinaus gepilgert, drei Kilometer zu Fuß, wir lagen auf einem solchen Grabmal, Steinhügel, Schutzhügel mit Unkraut." (Hf, 113) Faber는 Sabeth와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인가 묻게 되고 그녀가 Hanna의 딸임을 알게 된다.

Faber는 반복해서 그 당시 그는 Sabeth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얘기한다: "Dabei dachte ich nicht einen Augenblick daran, daß Sabeth sogar mein eignes

Kind sein könnte." (Hf, 118) 이어서 Faber는 Sabeth가 그의 딸이 아니라 Joachim의 아이라고 계산한다 : "Ich rechnete im stillen (...) pausenlos, bis die Rechnung aufging, wie ich sie wollte : Sie konnte nur das Kind von Joachim sein." (Hf, 121)

26) Faber는 Avignon에서 Sabeth와 함께 개기월식을 본 것과 Sabeth가 그와의 여행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자기 변호의 독백이 나온다. (Vgl. Hf, 124) (회상과 암시)

27) Faber는 아테네의 한 병원에서 Hanna와 재회한다 : "Wenn ich erwache, dann vor Hanna." (Hf, 125) 그리고 1시간 전에 Sabeth가 수술을 받았고 Faber 역시 독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사를 놓았다는 의사의 말을 Hanna가 전해준다. Hanna는 차분하게 Faber에게 여러가지를 묻는다.

〈Wie ist das gekommen?〉 fragt sie,
〈Ihr seid heute in Korinth gewesen?〉
Ich fror,
〈Wo hast du denn deine Jacke?〉
Meine Jacke lag am Meer.
〈Seit wann seid ihr in Griechenland?〉 (...)
〈Was hast du gehabt mit dem Kind?〉(Hf, 127)

28) Faber는 Akrokorinth의 해변가에서 Sabeth가 뱀에 물리고 어렵게 그녀를 아테네의 한 병원으로 옮긴 일에 대한 회상을 한다.

29) Faber는 Hanna와 21년만의 재회를 하게 되고 그녀의 아테네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지만 그들은 그때처럼 서로 다른 인생관을 들어낸다 :

Dann eben ihr Ausspruch : sie habe nicht hundert Töchter, sondern eine einzige (was ich wußte), und ihre Tochter hätte nur ein einziges Leben (was ich ebenfalls wußte) wie jeder Mensch : auch sie, Hanna, hätte nur ein einziges Leben, ein Leben, das verflucht sei, und auch ich (ob ich es wisse?) hätte nur ein einziges Leben. (Hf, 139)

30) Faber의 회상장면으로서 Akrokinth의 해변가에서 Sabeth와 함께 일출을 보았던 일등을 회상한다. (Hf, 150~152)

31) Faber는 Hanna와 함께 Sabeth가 사고를 당한 곳으로 그들의 소지품을 가지러 간다 : "〈Ich bekomme den Wagen von Institut - damit wir nach Korinth fahren können, weißt du, um ihre Sachen zu holen, auch deine Sachen, deine Schuhe und deine Jacke.〉" (Hf, 153)

32) 다시 Faber는 Sabeth의 사고 당시를 회상한다. Sabeth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둘러

오는 Faber의 벗은 모습에 놀라 뒤로 넘어져서 의식을 잃는다 :

Sie hält ihre rechte Hand auf die linke Brust, wartet und gibt keinerlei Antwort, bis ich die Böschung ersteige (es ist mir nicht bewußt gewesen, daß ich nackt bin) und mich nähere — dann der Unsinn, daß sie vor mir, wo ich ihr nur helfen will, langsam zurückweicht, bis sie (...) rücklings über die Böschung fällt. (Hf, 157-158)

33) Sabeth가 사고를 당한 곳에서 Hanna는 그녀가 Faber의 딸임을 그에게 고백한다 : “<Du weißt>, sagt sie, <daß es dein Kind ist?>” (Hf, 158) 그들은 그날 오후 3시에 아테네로 돌아와서 병원에 들렀는데 이미 Sabeth는 오후 2시경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 “Ihr Tod kurz nach vierzehn Uhr.” (Hf, 160) 그녀의 사망원인은 뱀에 물려서가 아니라 해변가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다친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 병원에서 밝혀진다 : “Wie heute feststeht, ist der Tod unsrer Tochter nicht durch Schlangengift verursacht gewesen, (...) ihr Tod war die Folge einer nichtdiagnostizierten Fraktur der Schädelbasis.” (Hf, 160)

여기서 “Erste Station”, 즉 첫 번째 보고문이 끝난다. 그리고 위 글이 쓰여진 장소와 날자가 나와 있다 : “Geschrieben in Caracas, 21. Juni bis 8. Juli.” (Hf, 160)

II .2.2 “Zweite Station” (두번째 체류지)

두 번째 체류지, 즉 이 소설의 두 번째 부분은 아테네 병원에서 그가 수술받기 직전까지의 기록들이다 : “Athen, Krankenhaus. Beginn der Aufzeichnungen 19. Juli” (Hf, 161) 그리고 이 부분은 아테네 병원에서 일기체 형식으로 쓴 위암 수술을 앞두고 전개되는 일들에 대한 서술 (이델릭체)과 6월 8일 이후 아테네를 떠나 7월 16일 취리히를 거쳐 아테네로 돌아오기까지의 여행과 방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기체 형식의 서술과 과거에 대한 회상이 대칭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의 서술과는 달리 비교적 단조롭게 플랫폼 전개가 되고 있다.

1)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아테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Faber는 친필로 Hanna가 날마다 딸 묘지를 찾아가고 또 병원에 있는 그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Ich soll von Hand schreiben ! (...) Hanna besucht mich täglich (...) Sie geht täglich ans Grab.” (Hf, 161)

2) 6월 8일에는 Faber가 뉴욕으로 돌아가 한 호텔에서 지낸다. 그는 친구들과 만난 유쾌한 분위기속에서도 전혀 즐거움을 못느낀다. 그리고 그가 11년간 살았던 Manhattan이 낯설어지고 얼마 전까지 그가 세들어 살았던 집으로 전화통 해본다 :

<Who's calling?>

<Walter>, sage ich. <Walter Faber.>

Es antwortet dieselbe Stimme wie vorher, so daß ich eine Weile verstummen : ich begreife nicht.

<Yes - what do you want?>(Hf, 163)

"뭘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할 말을 잃고 다만 그가 이 곳에서 사용하였던 전화번호임을 확인한다.

3) Faber는 친필로 아테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며 통계상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산술적으로 쓰고 있다. (Vgl. Hf, 164) 그리고 Faber는 Hanna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한다: "Ich werde Hanna heiraten." (Hf, 165)

4) 6월 9일 Faber는 터반 조립을 위해서 Caracas로 간다. 가는 길에 Guatemala 농장에 들러 Herbert를 만난다. 그의 모습이 2달 전과 비교해서 이 곳 사람처럼 변화해 있다: "Herbert wie ein Indio!" (Hf, 168)

5) 다시 친필로 Faber는 한나와 기술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적고 있다: "Technik als Kniff, die Welt als Widerstand aus der Welt zu schaffen, (...) Die Weltlosigkeit des Technikers. (Was Hanna damit meint weiß ich nicht)." (Hf, 169)

6) 6월 20일 Faber는 Caracas에 도착해서 조립과 관련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 "Ich riß mich zusammen, solange es ging, und daß ich jetzt, wo die Montage endlich lief, meinerseits ausfiel wegen Magenbeschwerden, war Pech, aber nicht zu ändern." (Hf, 170)

7) Faber는 아테네 병원에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란다: "Die Diakonissin hat mir endlich einen Spiegel gebracht - ich bin erschrocken. Ich bin immer hager gewesen, aber nicht so wie jetzt." (Hf, 170) 또 Professor O.가 위암으로 죽는다: "Jetzt ist Professor O., den ich in Zürich noch vor einer Woche persönlich gesprochen habe, auch gestorben." (Hf, 172)

8) Faber는 7월 9일에서 13일까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Cuba에 특별한 일없이 머문다:

Was ich in Habana zu tun hatte: - das Flugzeug wechseln, weil ich keinesfalls über New York, fliegen wollte, KLM von Caracas, Cubana nach Lissabon, ich blieb vier Tage. Vier Tage nichts als Schauen. (Hf, 172)

9) 다시 친필로 Hanna가 Faber를 병원으로 찾아오고 Faber가 미처 모르는 Hanna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때의 얘기를 듣는다:

Einmal, als Kind, hat Hanna mit ihrem Bruder gerungen und sich geschworen, nie einen Mann zu lieben, weil es dem jüngeren Bruder gelungen war, Hanna auf den Rücken zu werfen. (Hf, 182)

그리고 Hanna가 여학생 때 맹인인 그리스 노인과 항상 만나다가 그녀가 영국으로 갈 시절 헤어져서 소식이 끊겼다는 얘기와 Hanna가 Faber의 어머니와 얼마간 편지 교환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Faber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10) 7월 15일 Düsseldorf에서 Faber는 Joachim의 자살한 사진과 Sabeth와 여행 때 찍은 장면들을 활동사진으로 본다: "Es war das erste Mal, daß ich die Flime selber sah (alle noch ungeschnitten) gefaßt, daß es von Wiederholungen wimmelt, unvermeidlich." (Hf, 185)

11) Faber는 친필로 그의 여행중에 Hanna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바 없음을 적고 있다: "Ich habe ja auf meiner ganzen Reise überhaupt keine Ahnung gehabt, was Hanna nach dem Unglück machte." (Hf, 192)

12) Faber는 7월 16일 Zürich에서 Professor O.를 우연히 20여년 전 대학시절 즐겨갔던 Café Odéon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는 파리에서 Faber와 함께 만난 처녀가 그의 딸이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다: "Wie geht's Ihrer schönen Tochter?" (Hf, 194) Faber는 Mailand, Rom을 거쳐 Athen으로 간다. 공항에는 Hanna가 마중나와 있다: "Hanna am Flughafen." (Hf, 197)

13) Faber는 친필로 그의 수술 하루전임을 간단히 적고 있다: "Morgen endlich Operation." (Hf, 198)

14) Faber는 지금까지 한 번 Sabeth의 묘지를 찾아갔었음을 회고한다: "Bis heute bin ich ein einziges Mal an ihrem Grab gewesen." (Hf, 198)

15) 친필로 Faber는 수술받기 하루 전 오후 시간에서 수술받기 바로 직전까지의 일들을 오후 6시, 7시 30분, 자정, 새벽 2시 40분, 4시, 4시 15분, 6시, 6시 45분, 8시 5분에 쓰고 있다.

자정에 쓴 기록에서는 자신의 병을 미리 알았었다면 아마 그가 자살해버렸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Wenn ich wüßte, daß ich Magenkrebs habe, dann würde ich mir eine Kugel in den Kopf schießen!" (Hf, 198)

새벽 2시 40분과 오전 6시에는 Hanna에서 편지를 쓴다: "Brief an Hanna geschrieben." (Hf, 199. Vgl. Hf, 200)

4시 15분에 쓴 글에서 Hanna가 아테네를 떠나려고 배를 탔다가 도로 하선해서 그녀의 딸이 묻혀 있는 이 곳에 영원히 살 결심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ber Hanna will in Athen bleiben." (Hf, 200)

6시 45분 쓴 글에는 Hanna와 Joachim의 결혼 생활과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Hanna는 Faber와 아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가 Sabeth를 택했음을 알게 된다.

Hanna meint, unser Kind wäre nie zur Welt gekommen, wenn wir uns damals nicht getrennt hätten. Davon ist Hanna überzeugt. Es entschied sich für Hanna, noch bevor ich Bagdad angekommen war, scheint es; sie hatte sich ein Kind gewünscht, die Sache hatte sie überfallen, und erst als ich verschwunden war, entdeckte sie, daß sie ein Kind wünschte (sagt Hanna) ohne Vater, nicht unser Kind, sondern ihr Kind. (Hf, 200~201)

이 소설의 마지막 기록은 8시 5분에 Faber를 수술실로 데려갈 사람들이 온다고 적고 있다 :
"Sie kommen." (Hf, 203)

II.3 서술태도

「Homo faber」는 1인칭 소설로서 서술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태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인칭 서술자는 그가 서술하는 주인공 Walter Faber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Faber가 얼마나 자신과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독자는 1인칭 서술자를 통해서 Faber의 허상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서 Frisch는 Bloch/Schoch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ir sehen, wie er sich interpretiert. Wir sehen im Vergleich zu seinen Handlungen, daß er sich falsch interpretiert."

서술 방법으로는 회상과 예시, 독백과 대화체, 현재와 과거, 대과거, 가정법의 시제등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소설의 중심 시제는 과거로서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회고적으로 그의 경험과 삶을 보고하고 있다. 소설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회고, 예시, 현재의 즐거위 뿐만 아니라 시제도 다양하게 뒤섞여서 쓰이고 있는데 비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얼마 전 과거일에 대한 보고와 주인공의 병상생활을 중심으로 쓴 일기문 형식의 글이 차례로 번갈아가면서 쓰이고 있다. 이 소설은 현재의 즐거위에서 현재의 사건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건들이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즉 연대기적 사건 묘사에 반대되는 서술자의 회상을 독백 또는 대화로서 주인공의 20여년 전 과거 이야기가 삽입된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 이외에 미래에 일에 대한 암시도 있다. 회상과 암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Die Rückwendungen enthalten das, was Faber zum Zeitpunkt der Erinnerung (...) an die Ereignisse der Züricher Jahre von ihnen wußte, die Vorausdeutungen dagegen sind

4) P.A. Bloch/ B.Schoch : Gespräch mit Max Frisch. In : Hg. P.A. Bloch : Der Schriftsteller und sein Verhältnis zur Sprache dargestellt am Problem der Tempuswahl, Bern 1971, S.80.

zukunfts- und vergangenheitsgewiß zugleich.⁵⁾

진행되는 현재의 사건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일어난 즐거리 또는 일어날 즐거리에 있기 때문에 회상과 암시는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연극에서 극 중 배우가 갑자기 해설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소외효과를 야기한다. 소외효과로서의 암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ch habe das Leben meines Kindes vernichtet und ich kann es nicht wiedergutmachen. (Hf, 72)

이 현재 시제의 인용 귀절은 Faber가 유럽으로 가는 선박여행에서 우연히 젊은 처녀를 만난 현재의 즐거리속에 끼어든 서술로서 즐거리 끝부분에 전개될 Sabeth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즐거리 서술은 보통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데 비해서 이 암시의 내용은 현재 시제를 씌우므로서 뚜렷하게 소외효과적 서술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소외효과적 예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있다.

Ich hätte Hanna gar nicht heiraten können, ich war damals, 1933 bis 1935, Assistent an der Eidgenöss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Zürich, arbeitete an meiner Dissertation (Über die Bedeutung des sogenannten Maxwell'schen Dämons) und verdiente dreihundert Franken im Monat, eine Heirat kam damals nicht in Frage, wirtschaftlich betrachtet, abgesehen von allem anderen. (Hf, 33)

이 인용은 Faber가 Caracas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좌석 승객 Herbert와 대화를 나누는 현재의 즐거리 속에 삽입된 20여년 전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다. 여기서 소외효과적 서술 방법이란 현재의 즐거리 속에 느닷없이 끼어든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삽입되는 점이다.

소설 「Homo faber」는 “Ein Bericht”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즉 이 때 보고는 주인공 Walter Faber의 보고이다. 그의 보고는 깊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자기 변호 또는 자기 변명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Faber의 보고의 특성에 대해서 Lüth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s werden auch immer wieder erläuternde Bemerkungen, Kommentare, und Selbstausslegungen, Selbstanklagen und Selbstrechtfertigungen des Berichterstatters eingeschoben.⁶⁾

5) Hans Geulen : Max Frischs Homo faber, in : Hg. Walter Schmitz : Frischs Homo faber, Frankfurt/M. 1983, S.108

6) Hans Jürg Lüthi : Max Frisch, München 1981, S.27

이 소설의 1인칭 서술자는 기술과 과학이 세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Walter Faber의 허상을 서술하고 있다. Faber는 이러한 허상에 의해서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준치를 들이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인식한다. 따라서 Faber는 현대 산업사회에 사는 한 전형적 인물로서 제시되고 있다.

Es ist der vermeintliche Technikertyp aus einer Zeit, in der das Wort <American Way of Life> ganz positiv und gläubig ausgesprochen worden ist.”

다시 말하면 고도의 기술산업 사회의 대표로서 미국을 든다면 기술 문명의 발달과 진보에 인간의 미래를 맡기는 “기술자로서의 인간”(Homo faber)이 이 소설의 주인공 Walter Faber이다. Faber는 기술자가 세계의 주인이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때 기술자는 기술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고 문명화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계산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세계를 예견함으로써 그의 주인이 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마침내 삶과 죽음위에 군림하는 자이다. 그러나 Faber는 기술자이기는 하지만 자연 법칙에서 기술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술을 자신의 허상으로서 이용할 뿐이다: “Faber ist Techniker, aber nicht technisierten Mensch: er benutzt sie (Technik) als Maske.”⁷⁾ 1인칭 서술자는 이러한 Walter Faber의 세계관과 허상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인식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die beiden Stationen sind Phasen der Bewußtwerdung und des allmählichen Erkennens.”⁸⁾

소설 「Homo faber」의 첫 번째 보고는 1957년 “6월 12일에서 7월 8일까지 Caracas”에서 쓰여졌다. 이 부분의 보고는 Faber의 기술자로서 그의 합리적인 세계상을 정당하게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소설의 두 번째 부분의 보고는 1957년 “아테네 병원에서 7월 19일”(Hf, 161)까지의 기록으로 이 두 번째 보고의 여행은 첫 번째 여행지를 반복하면서 쿠바와 뒤셀도르프, 취리히를 추가로 거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Erste Station”의 첫 번째 여행은 뉴욕 - 과테말라 - 카라카스 - 뉴욕 - 파리 - 아비뇽 - 코린트 - 아테네로 가서 끝난다. “Zweite Station”의 두 번째 여행은 아테네 - 뉴욕 - 과테말라 - 카라카스 - 쿠바 - 뉴욕 - 뒤셀도르프 - 취리히 - 아테네이다. 이 여행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바퀴 돌아서 다시 아테네에서 멈춘다. 이러한 순환은 Walter Faber의 인식 과정의 변화와 밀접한 고리를 지니고 있다. Faber는 삶의 마지막 머무는 곳이 아테네이고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인식 변화를 체험케 된다: “Mein Irrtum: daß wir Techniker versuchen, ohne den Tod zu leben.” (Hf, 170) 기술자들이란 죽음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기술이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1인칭 서

7) Heinz Ludwig Arnold: Gespräch mit Frisch. In: H.L. Arnold: Gespräche mit Schriftstellern, München 1975, S.50.

8) Hrsg. v. Thomas Beckmann: Über Max Frisch, Frankfurt/M.1982, S.103

9) Hans Jürg Lüthi: Max Frisch, S.34

술자는 Walter Faber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한다.

Ⅲ. 주인공 Walter Faber의 허상

Ⅲ.1 기술자로서의 인간 Faber

Walter는 20세기 과학 기술 문명 사회의 세계관을 지닌 한 전형적 인물이다: "Homo faber ist ein Typus der Neuzeit, den der Leser bis in werkimmanente Datierungen hinein als Gestalt der zwanzigsten Jahrhunderts identifizieren kann."¹⁰ Faber는 기술과 과학의 힘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Ich bin nun einmal der Typ, der mit beiden Füßen auf der Erde steht." (Hf, 47) Faber는 우연과 운명, 예술과 문학에서 삶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삶의 변화는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미개한 자연조건의 상태를 발전되고 진보된 기술 산업사회로 옮기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Unesco의 직원으로서 저개발국가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일을 기꺼이 맡고 있다.

Ich platzte nur, (...) der Techniker als letzte Ausgabe des weißen Missionars,
Industrialisierung als letztes Evangelium einer sterbenden Rasse, Lebensstandard als Ersatz
für Lebenssinn— (Hf, 50)

Faber는 운명과 우연을 믿지 않으며 계산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를 둔 예측을 믿을 뿐이다: "Ich glaube nicht an Fügung und Schicksal, als Techniker bin ich gewohnt mit den Formeln der Wahrscheinlichkeit zu rechnen." (Hf, 22) 아울러 Faber는 기술자로서의 직업은 남성적 일이며 스스로 이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Ich stehe auf dem Standpunkt, daß der Beruf des Technikers, der mit den Tatsachen fertig wird, immerhin ein männlicher Beruf ist, wenn nicht der einzigmännlichen überhaupt." (Hf, 77) 실제로 Faber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이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Faber는 자기가 본대로 그리고 사물이 그렇게 생겼다고 확신한 것을 믿을 뿐이다: "Ich bin Techniker und gewohnt, die Dinge zu sehen, wie sie sind. Ich sehe alles, wovon sie reden, sehr genau; ich bin ja nicht blind." (Hf, 24) 즉 Faber는 현상세계를 객관적으로 유효한 현실로서 인식한다. 그 현상세계는 객관적 유효성을 지니는 인과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Faber의 이러한 생각은 다른 사물과의 연관성을 간과하며 동시에 "그러한 연관성에서 나오는"¹¹ 복합적 질서를 무시하고

10) Klaus Schuhmacher: "Well es geschehen ist." Untersuchungen zu Max Frischs Poetik der Geschichte, Hain 1979, S.58.

11) Ebda., S. 63 ". die sich aus solchen Verbindungen ergibt."

있다.

Faber의 세계상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다. Faber의 세계에는 초월적인 위력이나 경이로운 작용이 없다. 여기에 우연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세계의 설명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즉 우연이란 있음직하지 않은 것이며, 개연성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능한 것의 마지막 한계로서의 일종의 경험적 사실일 뿐이다. 이 세계란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다. Walter Faber는 실수함이 없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자 두뇌와 같은 인공 두뇌를 만듦으로써 이 세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er Homo Faber erweitert sein Unterfangen der Berechnung der Welt durch den Bau des künstlichen Gehirns, des Elektronengehirns, das ohne sich zu irren sogar auch die Zukunft errechnen kann.¹²⁾

Faber는 인간의 감정들, 모든 창조적 형상들, 예술과 문화를 무시한다. 심지어 인간의 예술 작품조차도 현대 문명의 산물인 로봇의 선조일 뿐이라고 본다.

(...) ich habe aber keine Lust, davon zu sprechen, und sagte lediglich, daß Skulpturen und Derartiges nichts anderes sind (für mich) als Vorfahren des Roboters. Die Primitiven versuchten den Tod zu annullieren, indem sie den Menschenleib abbilden – wir, indem wir den Menschleib ersetzen, Technik statt Mystik! (Hf, 77)

Faber의 생각에 따르면 조각품이나 예술 작품은 미개한 사람들이 죽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를 본따서 작품을 만들지만 현대과학의 기술자들은 사람의 신체를 보충하여 죽음을 극복한다. 기술자는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들을 철폐하고 마침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한다. Faber에게 있어서 죽음의 극복은 죽음에 대한 경험을 무효화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결국 현존재와 대립해 있는 허무, 즉 죽음을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 Frisch는 "Tagebuch"에서 시계가 보여주는 단순한 시간과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Vielleicht müßte man unterscheiden zwischen Zeit und Vergängnis : die Zeit, was die Uhren zeigen, und Vergängnis als unser Erlebnis davon, daß unserm Dasein stets ein anderes gegenübersteht, ein Nichtsein, das wir als Tod bezeichnen. (GW 2, 499)

기술자 인간 Faber는 죽음에 대한 인식, 무상함에 대한 인식을 거부한다. 그는 시간의 연속성에서 빠져나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시도한다. 그래서 Faber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Ich redete (...) über die Zeit ganz allgemein; über Uhren, die imstande wären, die Zeit rückwärts laufen zu lassen—" (Hf, 155) Faber는 시간을

12) Hans Jürg Lüthi : Max Frisch, S.27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무상함의 경험을 극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경이로움, 감동, 신비성의 근거가 되는 운명적인 일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Faber는 영원히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거듭하는 자연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품고 있다. 특히 Faber는 그의 수염이 자라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끊임없이 다듬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그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면도를 한다: "Als ich in die Kabine zurückkehrte, rasiert, so daß ich mich freier fühlte, sicherer - ich vertrage es nicht, unrasiert zu sein." (Hf, 10) Faber는 자신의 수염이 자라는 것이 마치 덩굴이 무방비 상태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심지어 전기가 전혀 없는 멕시코 사막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수염을 깎기 위해서 면도기를 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

Ich fühle mich nicht wohl, wenn unrasiert; nicht wegen der Leute, sondern meinetwegen.
Ich habe dann das Gefühl, ich werde etwas wie eine Pflanze, wenn ich nicht rasiert bin,
und ich greife unwillkürlich an mein Kinn. (Hf, 27)

Faber는 전기 면도기를 가지고 불편함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의 도움으로 자연적 성장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는 기술이 없는 자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Ohne Technik vermag er der Natur nicht zu begegnen."¹³⁾ 따라서 기술자로서의 Faber는 자연을 다스리고 다듬어 자신이 원하는 정돈되고 완결된 세계로 옮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는 기술을 통해서 문명화되고 완전히 계산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은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마침내 삶과 죽음위에 군림하는 자가 된다: "Wir leben technisch, der Mensch als Beherrscher der Natur, der Mensch als Ingenieur, und wer dagegen redet, der soll auch keine Brücke benutzen, die nicht die Natur gebaut hat." (Hf, 107)

이러한 허상은 Walter Faber에게 있어서 분명한 정당성과 유효성을 지닌다. Faber는 그의 허상에 부합되지 않는 운명, 비개연성조차도 그의 허상에 맞게 그것들을 계산한다. 그래서 수학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 "Ich brauche, um das Unwahrscheinliche als Erfahrungstatsache gelten zu lassen, keinerlei Mystik; Mathematik genügt mir." (Hf, 22) 따라서 Faber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은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Faber는 믿을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되고 폐쇄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Natürlich dachte ich daran, aber ich konnte es einfach nicht glauben, weil zu unglaublich (...)" (Hf, 118)

Faber의 폐쇄적 세계상은 그의 대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일만을 하며 살아가고 일과 더불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Ich war froh, allein zu sein." (Hf, 7)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다: "Menschen sind anstrengend." (Hf, 8) 또한 Faber는 철저

13) Manfred Jurgensen: Max Frisch, Die Romane, Bern 1972, S.113.

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Faber는 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Alleinsein ist der einzigmögliche Zustand für mich, denn ich bin nicht gewillt, eine Frau unglücklich zu machen, und Frauen neigen dazu, unglücklich zu werden." (Hf, 92) 아울러 Faber는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한 공간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Ich gebe zu : Alleinsein ist nicht immer lustig, man ist nicht immer in Form. (...) Dann, offen gestanden, langweile ich mich noch lieber allein. (...) Zu glücklichsten Minuten, die ich kenne, gehört die Minute, wenn ich eine Gesellschaft verlassen habe, wenn ich in meinem Wagen sitze, die Türe zuschlage und das Schlüssel stecke, (...) Menschen sind eine Anstrengung für mich, auch Männer. (Hf, 92)

Faber는 지독히 폐쇄적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나르시시적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가 사귄 미국인 여자친구 Ivy를 포옹하면서도 그는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 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Ivy를 생각해보려다 무심결에 자신의 팔꿈치에 입을 맞춘다: "und ich schließe die Augen, um an Ivy zu denken, die ich in meinen Armen habe, und küsse aus Versehen meinen eignen Ellbogen." (Hf, 94)

Faber의 폐쇄된 세계관과 그의 허상은 모든 계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시야를 차단하고 사랑의 힘, 감정과 비이성적인 경험의 힘, 그리고 그의 꿈에서 언어로 묘사된 무의식적인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든다. Max Frisch는 Faber의 허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r spielt eine Rolle, er verfällt einn Bildnis, das er sich gemacht hat von sich. Er lebt an sich vorbei, und die Diskrepanz zwischen seiner Sprache und dem, was er wirklich erfährt und erlebt, ist das, was mich dabei interessiert hat.¹⁴⁾

Faber는 자신의 주변 현상들을 기록하는데 짧고 함축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점에 그의 심리적 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Unser Aufenthalt in der Wüste von Tamaulipas, Mexico, dauerte vier Tage und drei Nächte, total 85 Stunden." (Hf, 22) 이와 같이 정확을 기하는 노력은 형식적 공간과 시간메모를 넘어서서 내용의 영역으로 까지 뻗어있다. 예를 들면 체류날자, 장소, 인 용과 정확한 용어등의 구사는 Faber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자 인간인 주인공의 의도와 일치한다. 이런 면에서 그의 언어는 기술자 인간이라는 역할언어라고 볼 수 있다.

Fabers Sprache ist eine Rollensprache, vorzüglich die Sprache eines Menschen, der sich mit dem Bild des Technikers identifiziert.¹⁵⁾

14) Bloch/Schoch : Gespräch mit Max Frisch, S.80

15) Walter Schmitz : Max Frisch, München 1984, S.25.

이와 같은 Faber의 역할 언어는 허상의 수단이다. 이러한 언어는 진실한 경험을 담은 삶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다만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표현한다. 작가는 그의 "Tagebuch"에서 언어의 허상에 대해서 쓰고 있다.

Was wichtig ist : das Unsagbare, das Weiße zwischen den Worten, und immer reden diese Worte von den Nebensachen, die wir eigentlich nicht meinen. Unser Anliegen, das eigentliche, läßt sich bestenfalls umschreiben, und das heißt ganz wörtlich; man schreibt darum herum. Man umstellt es. Man gibt Aussagen, die nie unser eigentliches Erlebnis enthalten, das unsagbar bleibt; sie können es nur umgrenzen, möglichst nahe und genau, und das Eigentliche, das Unsagbare, erscheint bestenfalls als Spannung zwischen diesen Aussagen. (GW 2, 378-379)

이러한 작가의 언어에 대한 의심이 이 작품의 형식 뿐만 아니라 주제성을 규정한다.

Ⅲ.2 Faber의 여성관계

Ⅲ.2.1 Hanna

Hanna는 Faber와 헤어진 후 Joachim과 결혼하여 Faber의 딸을 낳는다. Hanna의 안전을 위해서 Joachim은 캐나다나 호주로 이주하려는 생각을 했고 그녀는 그를 보좌하기 위해서 임상실험 일을 배우기도 했으나 결국 그들은 헤어진다. Joachim과 헤어진 Hanna는 파리의 출판사에 잠시 일하다가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가 BBC 방송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이민 생활을 하던 중에 공산주의자 Piper와 결혼을 했으나 그는 기회주의자였을 뿐이었다. Faber가 그녀를 아테네 병원에서 재회할 즈음 Hanna는 Piper와 헤어져 3년 전 아테네로 와서 한 고고학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Faber는 50세가 다 된 Hanna를 그 곳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소녀다운 인상에 짧은 은발 머리에 검은 팔레 안경을 쓰고 있어서 의사나 변호사같은 인상을 주었다: "Sie trägt eine Brille, schwarz, Hornbrille. Es könnte sich um eine Ärztin handeln, eine Anwältin oder so etwas." (Hf, 125)

Hanna는 학창시절 유태인 그리스 맹인노인 Arnim을 알게 되고 그의 눈을 대신해서 모든 사물과 주변의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Arnim과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아르님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배를 탄 이후 그의 소식이 끊겼다. Arnim은 맹인이라 할지라도 Hanna와의 의사 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Hanna가 보이는 대로 사물을 설명해 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한다. 따라서 Arnim은 삶의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직된 Faber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Er ist also das genaue Gegenteil von Walter Faber, der zwar physisch sehen, sich aber das Gesehene nicht vorzustellen vermag."¹⁶⁾

16) Manfred Jurgensen : Max Frisch, S.168-169.

그 이후 Hanna는 Faber를 사귀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였다. Faber는 Hanna와의 사귀기가 행복했었음을 회상한다.

Manchmal hatten wir einen regelrechten Krach, wenn wir beispielsweise aus dem Schauspielhaus kamen, wohin sie mich immer wieder nötigte (...) Nichtsdestoweniger waren wir sehr glücklich zusammen, scheint mir, und eigentlich weiß ich wirklich nicht, warum es damals nicht zur Heirat kam. (Hf, 47)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Hanna와의 사귀기가 Faber에게는 행복했는데 왜 그녀가 그의 결혼 제의를 거절했는지 의아스러워한다. Hanna가 그 당시 독일을 떠나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Faber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Hanna는 Faber의 결혼 제의를 거절하였다. Hanna는 Faber가 Bagdad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Faber는 Hanna와 헤어지게 될 것을 예감하지 못한 채 Zürich를 떠난다.

In jener Zeit kam das Angebot von Escher-Wyss, eine Chance sondergleichen für einen jungen Ingenieur, und was mir dabei Sorge machte, war nicht das Klima von Bagdad, sondern Hanna in Zürich. Sie erwartete damals ein Kind. (Hf, 47)

거듭 Faber는 왜 그 당시 Hanna가 결혼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처음에 Faber가 그녀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도 우선 그녀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Hanna는 Faber가 결혼하려는 첫번째 이유가 의무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유태인인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그녀를 동정해서 Faber가 결혼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Moralisches Pflichtgefühl also wäre der eine Grund für diese Ehe gewesen."¹⁷⁾ 나중에 Hanna는 Faber가 도덕적 의무에서 그녀가 아이를 갖길 원한다면 결혼하자고 애기한 점에 대해서 비난한다. 즉 Hanna는 Faber가 사랑에서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는 점을 비난한다: "Wenn du dein Kind haben willst, dann müssen wir natürlich heiraten. Später ihr Vorwurf, daß ich von Müssen gesprochen habe!" (Hf, 48)

또 Hanna가 Faber와 결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바그다드에서 기술자로서 일하게 된 사실이다. Hanna는 자신과 Faber가 결혼하는 것은 그의 직업적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사를 전공한 그녀로서도 그의 기술자라는 직업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Faber가 업무여행으로 Caracas로 가는 길에 비행기안에서 그의 젊은 시절 친구인 Joachim을 연상시키는 Herbert를 사귀게 된다: "Sein Gesicht (rosig und dicklich wie Joachim nie gewesen ist) erinnerte mich doch an Joachim." (Hf, 10) 나중에 그가 그의 친구의 동생임을 알게 되어

17) Ebd., S.101.

그와 더불어 Guatemala 농장으로 Joachim을 만나러 간다. 그 여행의 처음 동기는 그의 젊은 날 여자 친구와 결혼한 그에게 인사말을 전하러는데서 비롯한다: "(...) um einem Jugendfreund, der meine Jugendfreundin geheiratet hat, Gutentag zu sagen." (Hf, 43) 그러나 그 여행은 Faber가 잃어버린 Hanna를 재발견하는 자신의 과거와 회상으로의 여행이 된다.

이러한 재발견 과정은 Faber로 하여금 그가 사귀 다른 여자들과의 모든 관계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중요한 확인을 하게 한다: "Nur mit Hanna ist es nie absurd gewesen." (Hf, 100) 다시 말하면 Faber에게 있어서 Hanna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Hanna ist eine Frau, aber anders als Ivy und die andern, die ich gekannt, nicht zu vergleichen, anders als Sabeth, die ihr in vielen gleicht." (Hf, 146)

Hanna는 Faber의 삶의 영역과 전혀 다르다. Hanna는 Faber의 과학과 기술에 근거를 둔 그의 허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 속한다. Hanna는 Faber가 신봉하는 기술이란 한낱 세계를 조종하는 손잡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삶은 단순한 가감법이나 계산으로 풀리는 수확문제가 아니며 또한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Faber에게 반박한다: "Du behandelst das Leben nicht als Gestalt, sondern als bloße Addition." (Hf, 170) Hanna의 이러한 반박은 곧 삶이란 기술로서 조종하고 극복되는 소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Leben ist nicht Stoff, nicht mit Technik zu bewältigen." (Hf, 170)

Hanna와 마찬가지로 Faber에게 그의 기술과 과학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콰테말라 농장으로 가는 길에 Palenque에서 사귀 미국인 음악가 Marcel이다: "Marcel (...) schwatzte (...) vom Untergang der weißen Rasse, (...) vom katastrophalen Scheinsieg des abendländischen Technikers." (Hf, 50) Marcel은 현대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명의 세계로 부터 벗어나 중앙 아메리카에서 Maya문명을 연구한다. Maya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신에 대한 믿음으로 매 2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던 곳을 고스란히 두고 떠나 새로운 정글에 정착해서 다시 신전을 짓는다. 이들은 기술에 의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Marcel은 이 Maya인들의 지혜로움에 경탄한다: "Er findet es sinnvoll, obschon unwirtschaftlich, geradezu genial, tiefsinnig (profond), und zwar im Ernst." (Hf, 44) 반면에 Faber는 Maya인의 생활 방식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술로서 그들의 저개발된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Marcel과 Faber는 서로 대립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Hanna는 높은 교육 수준을 지녔고 아울러 자립적이고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때 동생과의 싸움에서 애고이스틱 체험을 했다. 이 유년 시절의 체험이 Arnim과의 관계, Faber의 결혼 제의 거절, Joachim과의 결혼 실패, 직업에서 나타나는 노련함과 명민함, 기술에 대한 거부,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고 애고이스틱인 모성애등에서 보면 그녀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나타난다. Hanna가 남자와 정신적 관계를 맨 처음 맺은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 맹인 노인 Arnim 뿐이다: "Der einzige Mann, dem sie vertraute, war ein Greis namens

Arnim, der in ihren Mädchenjahren eine gewisse Rolle gespielt hat." (Hf, 183) Hanna는 공원의 정해진 의자에 앉아 있는 Arnim을 규칙적으로 만났으며 Arnim이 편편을 보고 싶어하자 그녀는 그를 인도해서 그 곳을 다녀왔다. Hanna는 Arnim의 안내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다. 여기서 Hanna의 자기 희생적 모성애가 보인다.

Hanna는 Arnim과 마찬가지로 희생적으로 Sabeth를 정성껏 돌본다. Hanna는 아이 문제에 관한 한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은 채 키운다. 그래서 Sabeth는 오직 그녀의 아이일 뿐이다: *(<Sie ist mein Kind, nicht dein Kind.>)(Hf, 138) 이러한 Hanna의 아이에 대한 집착과 모성애를 Joachim과 Faber는 암탉에 비유해서 얘기한다: "Sie tat wirklich (...) wie eine Henne, die ihr Junges unter die Flügel nehmen muß." (Hf, 137) Hanna는 Faber의 죽음을 목전에 경험하면서 그녀가 Joachim에게 취한 자신의 이기적 태도에 대해서 쓰라린 회한이 갖는 고백을 Faber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Joachim glaubte ihr die Gründe nicht; sein Verdacht; Du willst keinen Vater im Haus! Er meinte, Hanna wolle nur Kinder, wenn nachher der Vater verschwindet. (Hf, 202)

Sabeth의 죽음과 Faber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위암 수술을 접하면서 Hanna는 완전한 자기 인식에 이른다. 그녀는 Joachim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Sabeth를 오직 그녀의 딸일 뿐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결국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헤어졌던 점, 그리고 Faber에게 그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결국 Faber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하고 Sabeth의 죽음이 초래된 것이 그녀의 외고집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일들이었다. Hanna는 자신의 외고집과 오만함 때문에 비싼 희생을 치루었다. 결국 그녀는 아테네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게 되었다: "Geläutert und gereift steht sie am Ende da, aber ohne Mann und ohne Kind."¹⁸⁾

아테네에서 Hanna의 직업은 박물관에서 부수진 옛 유물들을 모아 고증을 따라서 다시 짜맞추는 일이었다. 그녀의 직업에서 보여주는 원형대로 다시 짜맞추기가 삶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운명적 파멸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Hanna는 박물관 일을 그만두고 아테네를 떠나는 배에 승선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녀는 그것이 헛된 시도임을 알고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Hanna는 고통에 가득 찬 경험을 한 아테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묻혀 있는 이 곳에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 채 사랑에 가득찬 슬픔을 겪으며 "빛속에 머무른다." (Hf, 199)

"Hanna allein bleibt in Athen vom Leben unbesiegt, dem Schicksal ergeben, in liebeerfüllter Trauer."¹⁹⁾

18) Doris Fulda Merrifield: Das Bild der Frau bei Max Frisch, Freiburg 1971, S.79.

19) Manfred Jurgensen: Max Frisch, S.115.

III.2.2 Ivy

Ivy는 Faber가 Unesco에서 일하게 되어 뉴욕의 맨하탄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만난 26세의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다. Faber는 본질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지닌 속성을 Ivy가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Ivy heißt Efeu, und so heißen für mich eigentlich alle Frauen." (Hf, 91) Ivy는 Faber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면서도 담쟁이처럼 그에게 매달린다.

Trotz aller Unzufriedenheit mit diesem herz-und geschmacklosen Mann hängt Ivy an Faber wie eine Klette.²⁰⁾

Faber는 Ivy를 진지하게 그의 상대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거기에는 Faber 자신이 걸여된 심성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Ivy가 지니고 있는 "머리없는 지체의 인형 또는 기생동물 같은 천성"²¹⁾ 때문이기도 하다. Faber는 Ivy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다.

Wenn ich Ivy umarmte und dabei denke : Ich sollte meine Filme entwickeln lassen, Williams anrufen ! Ich könnte im Kopf irgendein Schach-Problem lösen, während Ivy sagt : I'm happy, o Dear, so happy, o Dear, o Dear ! Ich spüre ihre zehn Finger um meinen Hinterkopf, sehe ihren epileptisch-glücklichen Mund und das Bild an der Wand, das wieder schief hängt, ich höre den Lift, ich überlege mir, welches Datum wir heute haben. (Hf, 94)

Ivy는 여성적 감각성으로 항상 Faber를 유혹하고 그 점을 Faber는 싫어한다: "; ich haßte sie." (Hf, 62) Ivy는 기혼자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카톨릭 신자에다가 교황에 대한 가벼운 농담에도 화를 낸다. 그녀는 Hanna와는 달리 항상 Faber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몰두한다. Ivy는 Faber를 만나러 오는 이유를 그녀가 이 곳 상담소에서 진료받기 위하여 오는 것으로 둘러댄다. Faber는 그녀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가 생각하는지 다음의 그의 회상에서 알 수 있다.

Sie ist katholisch, Mannequin, sie duldet Witz über alles, bloß nicht über den Papst, vielleicht ist sie lesbisch, vielleicht frigid, es war ihr ein Bedürfnis, mich zu verfühlen, weil sie fand, ich sei ein Egoist, ein Unmensch, sie ist nicht dumm, Aber ein bißchen pervers, so schien mir, komisch, dabei ein herzensguter Kerl, wenn sie nicht geschlechtlich wurde..." (Hf, 65)

Ivy는 평소에 Faber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고집쟁이이며 감정도 없는 비인간적 태

20) Ebd., S.85.

21) Mona Knapp : Moderner Ödipus oder blinder Anpasser, In : Frischs Homo faber, S.195.

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Ivy는 Faber가 멕시코 Tamaulipas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그녀에게 쓴 작별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aber가 Caracas에서 뉴욕으로 돌아올 때 수소문해서 그의 도착 시간에 맞추어 공항으로 마중간다. Faber의 냉정한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그에게 집착한다. 평소에 Ivy는 그를 인정이 없고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불평하면서도 그를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Faber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그의 기분을 망치는 데서 그녀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Ich glaube, Ivy wollte, daß ich mich haßte, und verführte mich bloß, damit ich mich haßte, und das war ihre Freude dabei, mich zu demütigen, die einzige Freude, die ich ihr geben konnte." (Hf, 66) Faber는 이미 그녀에게 작별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일이 뜻밖일 뿐만 아니라 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Ich hatte nicht damit gerechnet, Ivy nochmals zu sehen und schon gar nicht in dieser Wohnung, die sie (unsere Wohnung nennt.) (...) Unser Krach beginnt, als Ivy mit einem Frottiertuch kommt, ich werfe sie hinaus - mit Gewalt leider, denn sie liebt Gewalt, dann hat sie das Recht, mich zu beißen- (Hf, 58)

Ivy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당연히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eine Art von Amerikanerin, die jeden Mann, der sie ins Bett nimmt, glaubt heiraten zu müssen." (Hf, 30)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결혼했으면서도 Faber가 결혼 제의를 한다면 자신의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Faber에게 결혼 제의를 그녀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Ich kannte nur ihren ewigen Vorwurf; daß ich überhaupt keinen Geschmack habe und daß ich sie nicht heirate." (Hf, 31) 이러한 Ivy의 불평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Ivy와 결혼할 수 있는지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Ich habe Hanna nicht geheiratet, die ich liebte, und wieso soll ich Ivy heiraten?" (Hf, 30)

Faber는 예기치 않은 뉴욕에서의 Ivy와의 만남이 그를 귀찮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만나고 있는 자신도 싫다고 느낀다: "Ich haßte mich selbst-" (Hf, 62) 그래서 Faber는 그녀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음 날 바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난다. Faber는 Ivy와 작별하면서 뉴욕에 세들어 살던 집도 비운다. 그것과 관련된 잔 일들의 해결은 Ivy의 몫이다. Ivy는 이번 Faber의 유럽여행이 그녀와의 영원한 작별임을 알고 떠나는 날 전송가서도 맨 마지막까지 배에 머문다.

Ich dankte ihr, als es tutete und der Lautsprecher immer wieder die Begleiter aufforderte, das Schiff zu verlassen; ich küßte sie, denn Ivy mußte nun wirklich gehen, unsere Sirenen widerhallten ringsum, so daß man sich die Ohren zuhalten mußte. Ivy war die letzte über die Brücke an Land ging. (Hf, 68)

III.2.3 Sabeth

Faber는 뉴욕에서 Ivy와 헤어져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 배의 선상에서 그는 Hanna의 딸인 Elisabeth Piper를 만나 사귀게 된다. Faber는 Sabeth를 사귀면서 외모는 Hanna와 닮지 않았으나 그녀를 보면 Hanna를 연상할 수 있었다.

Ich sagte mir, daß mich wahrscheinlich jedes junge Mädchen irgendwie an Hanna erinnern wurde. Ich dachte in diesen Tagen wieder öfter an Hanna. Was heißt schon Ähnlichkeit? Hanna war schwarz, Sabeth blond beziehungsweise rötlich, und ich fand es an den Haaren herbeigezogen, die beiden zu vergleichen. (Hf, 78)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Hanna와 Sabeth가 하나의 형상으로서 그의 마음에 와 닿는다: "Ihr Hanna-Mädchen-Gesicht!" (Hf, 94) 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회한 Hanna를 만났을 때 그녀가 딸과 대단히 닮았다고 생각한다: "Sie glich ihrer Tochter schon sehr." (Hf, 131)

Faber는 Sabeth를 보면서 20여년전 Hanna의 모습을 자주 그려본다. Sabeth는 그 당시 Hanna만큼 나이가 들어보이고 게다가 그녀처럼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는 현실로 돌아와서 Hanna는 지금쯤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 계산해 보기도 하고 흰머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Faber는 Hanna가 지금이라도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하더라도 그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Ich schloß die Augen, um zu schlafen. Wäre Hanna auf Deck gewesen, kein Zweifel, ich hätte sie sofort erkannt. Ich dachte: vielleicht ist sie auf Deck! und erhob mich, schlenderte zwischen den Decksesseln hin und her, ohne im Ernst zu glauben, daß Hanna wirklich auf Deck! (Hf, 79)

Faber는 옛날의 Hanna 나이 또래의 Sabeth를 보면서 그녀의 다리, 발, 손, 입술을 자세히 주목한다. 여기에 Hanna의 인상이 겹쳐지면서 Faber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인지 혼동스럽지만 그는 드디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찾아낸다.

Allerlei Verbrauchtes, allerlei, was vermutlich nie geblüht hat, lag auch da, Amerikanerinnen, die Geschöpfe der Kosmetik, Ich wußte bloß: So wird Hanna nie aussehen. (Hf, 79)

Faber는 Hanna와 헤어진 후 다른 누구와도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은 열고 대하지 못한다. 또 Hanna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기고 있음을 Sabeth를 통해서 확인한다. Sabeth는 Hanna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없어졌던 20여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게 한다. Sabeth에게서 Faber는 낮익고 친숙한 몸짓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Hanna를 연상시키는 Sabeth에게 그 옛날 Hanna에게 구혼했듯이 그녀에게 구혼한다.

때로는 Faber가 Sabeth를 대하면서 그녀가 아이같기도 하고 여자같기도 하다고 혼동을 느낀다: "ein Kind, das ich als Frau behandelte, oder eine Frau, die ich als Kind behandelte,

das wußte ich selber nicht." (Hf, 114) 그러나 Sabeth는 그를 남자로서 생각한다: "Du bist ein Mann!" (Hf, 114) 그런데 Faber는 늘 존재의 불안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다. 사춘기 때에는 그 열등감이 신체적 용모의 특징에서 느껴졌으나 이것에 대한 불안은 그가 성인이 되어 여러 이성을 사귀면서 극복된다.

Ich halte nichts von schönen Männern. Daß meine Nase etwas lang ist, hat mich in der Pubertät beschäftigt seither nicht mehr: seither hat es genug Frauen gegeben, die mich von falschen Minderwertigkeitsgefühlen befreit haben. (Hf, 98)

Sabeth를 만나면서 부리는 질투심과 부러움의 감정이 열등감을 대신해서 나타난다. 즉 Faber보다 삶을 풍부하고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낀다. 여기에서 Faber는 기술자로서의 삶만을 추구하는 그의 자세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Walter ist teils Roboter, teils menschlich—allzu-menschliches Gefühlswesen, Er gerät in einen unauflöselichen Konflikt mit seinen Gefühlen, weil sie sich nicht kommandieren oder errechen lassen.²²⁾

Sabeth는 남자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선상에서의 그녀의 평풍 친구 뿐 아니라 미국에 남자 친구가 있다. 처음에 Faber가 그녀에게 다가서는데 주저하게 한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여러가지 분야의 상식도 있고 특히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리고 Faber는 Sabeth가 여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녀의 장래에 대해서 추측해본다: "und weiß nicht, was aus ihr werden soll, Kinderärztin oder Kunstgeweblerin oder so etwas, vielleicht auch Stewardesse, um viel fliegen zu können, unter allen Umständen möchte sie einmal nach Indien und nach China." (Hf, 83)

Sabeth는 Faber의 삶의 인식을 바꾸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아비뇽과 코린트 여행에서 Sabeth는 삶의 환희에 젖고 Faber는 처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Sabeth를 보게 된다. Sabeth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Faber는 자신이 포기하였던 결혼을 다시 생각해낸 자신이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Ich dachte an Heirat wie noch nie." (Hf, 118) 아울러 지금 그녀와 더불어 여행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까해서 우려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한다.

Ich hoffte von Tag zu Tag, daß ich einmal mit ihr sprechen kann, ich war entschlossen, offen zu sein, nur hatte ich Angst, daß sie mir dann nicht glauben, beziehungsweise mich auslachen würde... (Hf, 108)

22) Manfred Jurgensen : Max Frisch, S.147.

위의 Faber의 말처럼 Faber의 마음이 사랑으로 인해서 세계와 주변 사람을 향하여 열려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Sabeth의 힘이다. 그는 그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

Ich werde nie vergessen, wie sie auf diesem Fels sitzt, ihre Augen geschlossen, wie sie schweigt und sich von der Sonne bescheinen läßt. Sie sei glücklich, sagt sie, und ich werde nie vergessen; das Meer, das zusehends dunkler wird, blauer, voilet, das Meer von Korinth und das andere, das attische Meer, die rote Farbe der Äcker, die Oliven, grüspanig, ihre langen Morgenschatten auf der roten Erde, die erste Wärme und Sabeth, die mich umarmt, als habe ich ihr alles geschenkt, das Meer und die Sonne und alles, und ich werde nie vergessen, wie Sabeth singt! (Hf, 152)

Sabeth는 Faber와 여행하는 중에 그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에서 그가 아버지처럼 행동한다고 느낀다: "Du tust wie ein Papa!" (Hf, 115) 이러한 Sabeth의 느낌은 대단히 옳았다. 다만 Sabeth는 그러한 태도를 아버지 같은 애정의 표현으로 잘못 이해한다. Sabeth 자신도 미처 몰랐던 Faber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코린트 해변가에서 그녀가 뱀에 물렸을 때 그녀를 도우러 오는 벌거벗은 Faber를 보는 순간 그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그녀의 자세에서 알 수 있다.

IV. 대립적 삶의 영역

이 소설에서 대립적 삶의 2가지 영역은 기술(남자, 미국, 자연과학)과 예술(여자, 유럽, 자연/신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립된 두 영역에 속한 Walter Faber와 Hanna Landsberg의 결합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Faber는 기술로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고 Hanna는 운명의 힘을 인정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사랑과의 무감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결합은 불가능한 일로서 나타난다. 이들은 서로를 몽상가 또는 기술자 인간으로 부른다: "Ich nannte sie eine Schwärmerin und Kunstfee. Dafür nannte sie mich Homo faber." (Hf, 47) 이러한 애칭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이 작품은 삶의 대립적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대립적 관계로 나타난다: "Der Mann sieht sich als Herr der Welt, die Frau nur als seinen Spiegel." (Hf, 140)

IV.1 기술과 운명

Faber는 합리적이며 명료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며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일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대상이다. 따라서 Faber는 경험, 더 높은 섭리의 연관성에 대한 예감과 신의 섭리에 대한 희망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온 세계는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ber는 그가 탄 비행기가 불시착한 멕시코 사막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추하며 기술자로서 자신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현상 세계만을 인정할 뿐 거기서 체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Ich habe mich schon oft gefragt, was die Leute eigentlich meinen, wenn sie von Erlebnis reden. Ich bin Techniker und gewohnt, die Dinge zu sehen, wie sie sind. Ich sehe alles, wovon sie reden, sehr genau; ich bin ja nicht blind. Ich sehe den Mond über der Wüste von Tamaulipas — klarer als je, mag sein, aber eine errechenbare Masse, die um unseren Planeten kreist, eine Sache der Gravitation, interessant, aber wieso ein Erlebnis? Ich sehe die gezackten Felsen, schwarz vor dem Schein des Mondes; sie sehen aus, mag sein, wie die gezackten Rücken von urweltlichen Tieren, aber ich weiß: Es sind Felsen, Gestein, wahrscheinlich vulkanisch, das müßte man nachsehen und feststellen. Wozu soll ich mich fürchten? Es gibt keine urweltlichen Tiere mehr. Wozu sollte ich sie mir einbilden? Ich sehe auch keine versteinerten Engel, es tut mir leid; auch keine Dämonen, ich sehe, was ich sehe; die üblichen Formen der Eroison, dazu meinen langen Schatten auf dem Sand, aber keine Gespenster. (Hf, 24)

(나는 사람들이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나는 기술자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나는 결코 눈먼 자가 아니다. 나는 타마우리 파스의 황무지 위에 뜬 달을 본다 — 여느 때 보다도 더 분명하게 본다. 그러나 우리들의 유성 주의물 맴도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 중력이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어째서 경험이 흥미로울 수 있을까? 나는 달빛에 검게 보이는 표족한 바위를 본다. 그 돌들은 태고적 동물들의 표족한 등어 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은 바위이며, 광석이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화산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더 자세히 연구해서 확인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는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일까? 나는 화석화된 천사를 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악마를 보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알 뿐이다. 침식된 그 밖의 형상들, 게다가 나는 결코 유명이 아닌 모래밭에 비쳐진 나의 긴 그림자를 볼 뿐이다.)

그러한 가시적 현상 세계의 정확함과 분명한 힘을 지닌 기술의 표상으로서 2가지가 나온다. 첫째는 로보트이다. 로보트는 인간처럼 경험에 근거한 희망을 품지도 않으며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 오직 그것은 순수한 개연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인간보다도 더 잘 예측한다.

Vor allem aber; die Maschine erlebt nicht, sie hat keine Angst und keine Hoffnung, die nur stören, keine Wünsche in bezug auf das Ergebnis, sie arbeitet nach der reinen Logik der Wahrscheinlichkeit (...) Der Roboter erkennt genauer als der Mensch, er weiß mehr von der Zukunft als wir, denn er errechnet sie, er spekuliert nicht und träumt nicht,

sondern wird von seinen eigenen Ergebnissen gesteuert (feed back) und kann sich nicht irren; der Roboter braucht keine Ahnungen-. (Hf, 75)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지구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Faber는 생각한다. 오늘날 임신중절은 자명한 일이며 만일 의학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Faber는 묻는다: "Wo kämen wir hin ohne Schwangerschaftsunterbrechungen? Fortschritt in Medizin und Technik nötigen gerade den verantwortungsbewußten Menschen zu neuen Maßnahmen." (Hf, 105) 또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위협적인 인구 폭발의 문제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Menschen sind keine Kaninchen, Konsequenz des Fortschritts; wir haben die Sache selbst zu regeln. Die drohende Überbevölkerung unserer Erde." (Hf, 105)

따라서 이러한 인구 문제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Würde des Menschen, vernünftig zu handeln und selbst zu entscheiden." (Hf, 106) 또 임신중절은 문화의 결과이며 정글은 자연의 방식대로 낳고 소멸하는 곳이다. 그러니 인간은 계획을 세워서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파국적 결혼과 불행들이 단순히 임신중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인은 자연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 종교적 관념에 지배되어 산아조절을 못한다면 인간사회는 정글의 세계가 된다. 이러한 세계관이 기술자로서의 인간 Faber를 통해서 표출된다.

그런데 경험이나 운명의 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Faber는 마치 회람 문학에서의 신탁처럼 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자신의 딸을 죽음의 길로 안내한다. Faber는 자신의 딸과의 운명적 만남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서 겪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Faber는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후회에 찬 회고를 한다: "Wieso Fügung! Es hätte auch ganz anders kommen können." (Hf, 73) 이러한 Faber의 비극적 운명은 그리스 비극 작품속에 나오는 비극적 운명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Ödipus는 신탁에 의해서, 즉 외부의 운명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어,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외디푸스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외디푸스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별로서 스스로 눈을 멀게 만든다.

이와는 달리 Faber의 경우는 거꾸로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신탁은 운명이나 외부로 부러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허상에서 비롯되고 Faber 자신은 그가 눈 먼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Faber의 허상이 곧 그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이 소설의 중심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chicksal wird zum Drehpunkt der Erzählung."²³⁾ 동시에 Faber의 허상은 그의 신탁이라고 볼 수 있다.

23) Volker Hage: Max Frisch, S.73.

Fabers Orakel ist von ihm selbst geschaffen und könnte von ihm selbst geschaffen auch geändert werden, wodurch wirklich alles anders kommen könnte.²⁴⁾

IV.2 개연성과 우연

Faber는 이 세상의 일을 개연성, 즉 있음직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 개연성은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풀이되고 해명될 수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as Wahrscheinliche (...) und das Unwahrscheinliche (...) unterscheiden sich nicht dem Wesen nach, sondern nur der Häufigkeit nach, wobei das Häufigere von vornherein als glaubwürdiger erscheint. Es ist aber, wenn einmal das Unwahrscheinlichen sprechen, ist ja das Unwahrscheinliche eintritt, nichts Höheres dabei, keinerlei Wunder (...) Indem wir vom Wahrscheinlichen sprechen, ist ja das Unwahrscheinliche immer schon inbegriffen und zwar als Grenzfall des Möglichen, und wenn es einmal eintritt, das Unwahrscheinliche, so besteht für unsereinen keinerlei Grund zur Verwunderung, zur Erschütterung, zur Mystifikation. (Hf, 22)

(개연성과 비개연성의 차이는 그 본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빈도수에 의해서 구분된다. 따라서 비개연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더 고상한 것, 어떠한 기적도 없다. 우리들이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개연성은 항상 그것에 포함되어 있고 비개연성이 한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탄이나 감동 또는 신비로움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Faber의 개연성에 대한 진술에서 비개연성은 개연성 속에 포함시킬 수가 있으며 그것이 통제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Faber는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구조속으로 우연을 집어넣음으로써 우연의 힘을 무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ber는 여러가지 우연성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비행기 엔진 결함으로 불시착한 점, 비행기 열좌석 승객 Herbert를 통해서 Hanna와 Joachim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점, 그로 인해서 Faber가 우연히 예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Herbert를 따라 콰데말라로 Joachim을 만나러 가는 점, 또 비행기 대신에 선박을 이용해서 파리로 가다가 Sabeth를 만난 점 등은 중첩된 우연성이라고 볼 수 있다.

Faber는 개연성의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우연성을 먼 사건에 달려들어 간다. 특히 Faber는 자신의 친 딸을 사랑하여 그녀의 삶을 파국으로 이끌어 간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방식과 해결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24) Hans Jürg Lüthi : Max Frisch, S.33-34.

Ich war nicht imstande, alles zugleich in meine Rechnung zu nehmen; aber irgendeine Lösung, fand ich, muß es immer geben. (Hf, 159)

Faber가 그 해결을 찾으려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선 운명적 일이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Faber에게 있어서 우연의 힘은 그의 계산 가능한 세계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Faber가 맞이한 우연적 상황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Faber가 탄 비행기가 멕시코 사막에 불시착해서 Herbert와 여러 날 지내게 되면서 그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사건속으로 빠져든다. Herbert를 통해서 Hanna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녀와 헤어진 이후의 궁금증을 풀어내게 된다. 또한 Faber는 자신의 업무와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Herbert와 함께 Joachim을 만나러 콰테말라 담배 농장으로 간다. 만약에 Faber가 Caracas로 가는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 Houston에 섰을 때 그의 의도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결코 Herbert가 Joachim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헤어질 수도 있었다. Faber는 Houston에서 갑자기 자신의 여행을 중단하고 싶었다.

Ich hatte einfach keine Lust weiterzufliegen. Ich wartete hinter der geriegelten Tür, bis man das Donnern einer startenden Maschine gehört hatte— eine Super—Constellation, ich kenne ihren Ton! (Hf, 13)

Faber는 결국 여승무원의 눈에 띄어서 그 비행기를 다시 탄다. 그 때 그의 기분은 자신이 마치 감옥에서 법정으로 호송되는 느낌이었다: “; ich ging wie einer, der vom Gefängnis ins Gericht geführt wird.” (Hf, 14)

두 번째로 Faber가 마주친 우연은 뉴욕 집에서 면도틀 하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유럽행 선박 회사로 부터 급히 다음날의 배표를 구입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는다: “Plötzlich höre ich mich am Telefon: Anfrage wegen Schiffplatz nach Europa, gleichgültig welche Linie, je rascher um so lieber.” (Hf, 60) 이 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는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Faber는 스스로 긴 시간이 걸리는 배를 이용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의아해한다.

Es war sehr unwahrscheinlich, um diese Jahreszeit eine Schiffplatz nach Europa zu bekommen, und ich weiß nicht, wieso ich plötzlich (...) auf die Idee kam, nicht zu fliegen. Ich war selbst überrascht. (Hf, 60)

더구나 그는 무료하게 아무 할 일 없이 여러 날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 있지도 못하다: “Ich bin nicht gewohnt, untätig zu sein.” (Hf, 74)

세 번째로 Faber는 이 소설의 가장 극적인 만남을 우연히 체험케 된다. 배를 타자마자 승객중에 젊은 Elisabeth Piper가 눈에 띄었고 그는 그녀의 선상 생활을 관심있게 들여다본다. 그 행동

들이 그로 하여금 Hanna를 연상하게 한다.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Sabeth는 그녀의 나이보다 2배가 많은 나이의 Faber와도 쉽게 친한다. 그래서 배승무원은 Faber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9일간의 배여행은 Faber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선하기 전날 저녁 Faber는 Sabeth에게 청혼한다. 그런 자신의 태도에 놀란다: "Ich hatte gesagt, was ich nie habe sagen wollen." (Hf, 95)

Faber는 자신의 허상과 그 허상에 대한 확고불변한 믿음이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맹인으로 만든다. 특히 그가 자기의 딸에게 청혼까지 하게 된 상황과 사실에 직면해서 Faber는 우연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연은 개연성의 법칙처럼 나름대로의 구속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

Doch die Zufälle unterbrechen nicht nur das Übliche, sie konstituieren sich auch selbst zum System eines magnethaften Kraftfeldes, in dem dieselbe Strenge und Gesetzmäßigkeit zu herrschen scheinen wie in der Welt des Wahrscheinlichen.²⁵⁾

그러나 Faber는 그가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und es war ein unwahrscheinlicher Zufall, daß wir überhaupt ins Gespräch kamen, meine Tochter und ich." (Hf, 72~73) Faber는 Sabeth와의 만남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성, 즉 그는 그 우연의 힘을 믿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Max Frisc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atürlich läßt sich denken, daß wir unser mögliches Gesicht, unser mögliches Gehör nicht immer offen haben, will sagen, daß es noch manche Zufälle gäbe, die wir übersehen und überhören, obschon sie zu uns gehören; aber wir erleben keine, die nicht zu uns gehören. (GW 2, 750)

그러니까 Faber는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우연들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Faber가 자신을 옹호하거나 죄의식을 느낄 때, 그 모든 것은 우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그 원인을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Ein Gefühl für seine Schuld entwickelt er allerdings durchaus: es wird erkennbar gerade auch dann, wenn er sich verteidigt, indem er alles dem Zufall zuschreibt.²⁶⁾

오히려 Faber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되묻는다: "Was ist denn meine Schuld?" (Hf, 123)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죄의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Warum sagt sie's nicht, daß ich ihr Leben zerstört habe? (...) Ein einziges Mal habe ich Hanna verstanden, als sie mit

25) Peter Pütz: Das Übliche und das Plötzliche. Über Technik und Zufall im Homo faber, in: Frischs Homo faber, S.135.

26) Jürgen H. Petersen: Max Frisch, Stuttgart 1978, S.137.

beiden Fäusten in mein Gesicht schlug, damals am Totenbett.” (Hf, 193)

Faber의 이러한 보고에서 그의 죄의식이 들어나기는 하지만 그 원인 규명은 하지 않는다. 그의 죄는 “기술의 방향으로 생각을”²⁷⁾ 키워온 그의 자세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죄는 자신의 경직되고 허상에 사로잡힌 자세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그 원인을 돌리는데 있다.

V. Faber의 인식 변화

V.1 죽음에 대한 예감

작가 Frisch는 H. Bienek과의 대화에서 “Homo faber”는 “한 죽어가는 사람의 일기로서 제시”(vorgelegt als Tagebuch eines Moribunden)²⁸⁾ 되었다고 말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Faber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줄곧 신경이 예민해지고 흥분됨을 떨켜내지 못한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는 눈을 감고 잠을 자려해도 계속 신경이 예민해짐을 느낀다: “, und was mich nervös machte, so daß ich nicht sogleich schlief.” (Hf, 7) 심지어 옆좌석 승객 조차도 신경에 거슬린다: “Ich weiß nicht, warum er mir auf die Nerven ging, irgendwie kannte ich sein Gesicht, ein sehr deutsches Gesicht.” (Hf, 8)

Faber는 애써 자신의 불안감을 무시하려고 한다: “Ich weigere mich, Angst zu haben aus bloßer Fantasie, beziehungsweise fanastisch zu werden aus bloßer Angst, geradezu mystisch.” (Hf, 25) 이러한 Faber의 불안과 신경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잠재의식이 그의 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 꿈은 Ivy에 대한 것이면서 그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Las Vegas의 카지노에 있었고 확성기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불리우고, 게다가 그는 이혼하기 위해서 발가벗은 채 순서를 기다리고 그의 대학시절 은사인 Professor O.가 보였는데 그는 수학자인데도 완전히 감상적이고 게다가 울고 있다. 그런데 그는 뒤셀도르프 사람 Herbert와 결혼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려 하지만 그는 입을 벌릴 수가 없고 마침내는 이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 ich träumte von Ivy, jedenfalls fühlte ich mich bedrängt, es war in einer Spielbar in Las Vegas (...), Klimbim, dazu Lautsprecher, die immer meinen Namen riefen, ein Chaos von blauen und roten und gelben Automaten, wo man Geld gewinnen kann, Lotterie, ich wartete mit lauter Splitternackten, um mich scheiden zu lassen (...), irgendwie kam auch

27) Ebd., S.137 “diese Schuld mit dem technisch orientierten Denken”

28) Horst Bienek : Werkstattgespräche mit Schriftstellern, München 1962, S.24.

Professor O. vor, mein geschätzter Lehrer an der Eidgenöss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aber vollkommen sentimental, er weinte immerfort, obschon er Mathematiker ist, beziehungsweise Professor für Elektrodynamik, es war peinlich, aber das Blödsinnigste von allem: - Ich bin mit dem Düsseldorfer verheiratet! ... Ich wollte protestieren, aber konnte meinen Mund nicht aufmachen, ohne die Hand davor zu halten, da mir soeben, wie ich spürte, sämtliche Zähne ausgefallen sind, alle wie Kieselsteine im Mund- (Hf, 15~16)

이러한 꿈의 내용은 이 소설의 비극적 줄거리를 함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해서 벌거벗은 그의 모습은 현실의 줄거리속에서 Faber가 청혼을 한 Sabeth가 뱀에 물렸을 때 벌거벗은 채 서둘러 그녀를 구하러 달려가는 Faber의 모습이며, Professor O.의 감상적 태도는 기술자로서 Faber가 그것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옛 것, 즉 허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Faber는 아테네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우연히 Professor O.를 만난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를 질게 드리우고 있다: "Schädel mit Haut darüber, die Haut wie gelbliches Leder, sein Ballon-Bauch, die abstehenden Ohren, seine Herzlichkeit, sein Lachen wie bei einem Totenkopf." (Hf, 193) Faber는 Professor O.를 만난 뒤 도처에서 죽음을 보게 된다. 그는 Zürich를 떠나 아테네로 가면서 "그의 마지막 여행" (Hf, 194)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Herbert와의 부조리한 결혼의 상징은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 꿈의 예시는 Faber의 불안과 예민함, 병의 증세가 뒤섞여서 그를 괴롭히는데서 비롯한다: "Der Traum, der Fabers eigene Verlorenheit und Irritation symbolisiert, verdichtet sich zur Vorahnung körperlichen Zerfalls."²⁹⁾

Faber의 병의 증세는 이미 그의 여행 서두부터 나타난다: "Ich spürte den Magen-wie-wie öfter in der letzten Zeit, nicht schlimm, nicht schmerzhaft." (Hf, 10) 그러나 그는 병의 증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자연과학이나 기술, 의학의 힘을 신봉하는 Faber가 병의 증세를 뚜렷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병원에서 그의 병명이 밝혀지기까지 병원에 가 본 적이 없다: "Ich bin nicht gewohnt, zu Ärzten zu gehen, nie in meinem Leben krank gewesen." (Hf, 100) 다만 선박 여행에서 위의 통증을 느껴자 파리에 가면 의사에게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다: "Übermorgen in Paris (...) werde ich zu einem Arzt gehen, um einmal meinen Magen untersuchen zu lassen." (Hf, 89) 그러나 실제로 Faber가 병원에 가지 않았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의 아테네 병원의 일기에서 만약에 그가 미리 자신의 병명이 위암임을 알았다면 자살해 버렸을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수술받기까지 알지 못한채 지냈다. Faber의 병에 대한 증세는 여러 차례 반복된다. 예를 들면 Joachim을 만나러

29) Anita Krätzer : Studien zum Amerikabild in der neueren deutschen Literatur, Bern 1982, S.49.

가는 길에 Palenque에서, 배안에서 그가 사권 승객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Faber는 Sabeth가 죽은 뒤 Caracas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심하게 위의 통증을 느낀다.

Faber의 불안, 예민함, 병의 증세들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처음에는 불안과 예민함에 대한 서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다가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를 출발한 이후부터는 병의 증세가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때로는 이 두가지가 다 함께 들어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다. 예를 들면 비행기 중간 기착지 Houston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말리다가 우연히 거울을 들여다 본 순간 시체같이 핏기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

Mein Gesicht im Spiegel, während ich Minuten lang die Hände wasche, dann trockne; weiß wie Wachs, mein Gesicht, beziehungsweise grau und gelblich mit violetten Adern darin, scheußlich wie eine Leiche. (Hf, 11)

Faber는 자신의 창백한 모습은 밖에서 스며든 네온 싸인의 불빛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ch vermutete, es kommt vom Neon-Licht." (Hf, 11)

이러한 Faber의 자세는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의 병색질은 얼굴로 보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데서도 나타난다. Faber는 병실에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본다: "Wenn ich auf dem Rücken liege und den Spiegel über mich halte, sehe ich immer noch aus, wie ich ausgesehen habe; nur etwas magerer, was von der Diät kommt, begreiflicherweise." (Hf, 171) Faber는 자신의 뼈적바른 모습에 실망하고 놀라면서 병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병실의 커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Vielleicht ist es auch das weißliche Jalousie-Licht in diesem Zimmer, was einen bleich macht sozusagen hinter der gebräunten Haut, nicht weiß, aber gelb." (Hf, 171) 이러한 자기 나름의 이유와 자기 위안은 마지막까지 그의 허상이 완전하게 벗겨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Faber는 수술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통계에 의지해서 자기 위안을 얻는다. 즉 Faber는 위암 수술을 통계 사례에 맞추어서 성공할 가능성을 기대한다.

Meine Operation wird mich von sämtlichen Beschwerden für immer erlösen, laut Statistik eine Operation, die in 94.6 von 100 Fällen gelingt, und was mich nervös macht, ist lediglich diese Warterei von Tag zu Tag. Ich bin nicht gewohnt, krank zu sein. Was mich auch nervös macht; wenn Hanna mich tröstet, weil sie nicht an Statistik glaubt. (Hf, 164)

Faber는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통계상의 수치를 믿는데서 나온 자기 확신이며 그를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수술날자를 무리하게 기다리는 일이며 한나가 그러한 통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다림의 예민함과 불안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기인하는 것임을 Faber는 깨닫지 못한다.

V.2 Faber의 인식 변화

Faber의 삶의 인식 변화는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자 역할과 작별하는 것을 뜻하며 자신의 자아 동질성을 찾으려는 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Faber의 허상은 우연, 운명, 경험들에 대한 시야를 차단하고 또 그의 꿈에서 언어로 묘사된 무의식의 의미를 볼 수 없게 한다. 따라서 Faber는 중첩된 우연들로 인한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적이고 수학적인 세계상이 거짓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Faber는 마치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싹처럼 그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의해서 이 세상을 규정하고 그 허상은 그에게 닥친 여러가지 경고 신호를 느낄 수 없도록 만들고 마침내 코린트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운명적인 길로 접어들게 된다. 아크로코린트에서 치명적인 쓰러짐으로 인한 Sabeth의 죽음까지를 다룬 "첫번째 체류지"에서는 Faber의 인식변화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Faber는 Hanna와 헤어진 후 더욱 유아독존적인 자아만 있었다. 따라서 여자들은 그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존재일 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실존체로서 그 자신과 동반자 관계에 놓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 유럽으로 가는 배안에서 Sabeth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사랑의 열린 작용을 체험한다. Faber는 Sabeth와 함께 Avignon에서 예상치 못했던 개기월식을 보게 되면서 처음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의 순환으로서 경험하고 그 날 밤 Sabeth가 그의 방으로 온다.

Ich redete von Tod und Leben, glaube ich, ganz allgemein, und wir waren beide aufgeregt, da wir noch nie eine dermaßen klare Mondfinsternis gesehen ich den verwirrenden Eindruck, daß das Mädchen, das ich bisher für ein Kind hielt, in mich verliebt war. (Hf, 124-125)

Faber는 Sabeth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계와 주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간다.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됨으로써 서서히 기술과 과학에 의거한 그의 허상으로 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한 징표로서 특히 Hanna를 그의 유일한 삶의 친구로 생각하는데서 볼 수 있다: "Aber ich bin nicht allein, Hanna ist mein Freund, und ich bin nicht allein." (Hf, 198)

또 한편으로 Faber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느껴서 혼자있고 싶어한다. 예를 들면 Sabeth가 죽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Wir haben, nach unsrer schlaflosen Nacht auf Akrokorinth, im Sand geschlafen, dann das Bedürfnis meinerseits, ins Wasser zu gehen und eine Weile allein zu sein, während sie schläft." (Hf, 157) 바로 이 순간 Sabeth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Faber를 찾으러 나오다 뱀에 물렸고 그녀의 외침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벌거벗은 Faber의 모습에 놀라 뒤로 물러서면서 넘어져 결국 그로 인해서 그녀는 죽게 되었다. 만약에 Sabeth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Faber가 그녀를 만났을리도 없고 따라서 그는 가장 본질적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허상에만 사로잡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두번째 체류지”에서는 마침내 Faber가 자신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허상을 꿰뚫어보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변화와 그것에 반대하는 허상에 사로잡힌 자아와의 갈등을 드러낸다.

Im Stil der letzten Tagebucheinträge spiegelt sich die neu gewonnene Offenheit Fabers, wie der Stil seines vorhergehenden Berichts den Kampf zwischen unterdrückter Psyche und Selbstbildnis abzeichnete und Fabers Selbst nur in der Spannung zwischen diesen beiden Polen ahnen ließ.³⁰⁾

Faber는 Sabeth가 죽은 다음 뉴욕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Ich wußte nicht, was anfangen.” (Hf, 161) 또 뉴욕의 친구들과 직장도 그가 11년간이나 이사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던 집도 도시도 다 낯설게 느껴진다: “Ich war schon nicht mehr da.” (Hf, 163) 마침 Caracas로 급히 가야하는 일이 다행스럽다고 Faber는 생각한다.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Faber는 콰테말라로 Herbert를 만나러 간다.

Herbert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콰테말라 담배 농장에 살고 있다. Faber는 변화된 Herbert를 보면서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보고한다: “Wir verstanden uns überhaupt nicht.” (Hf, 167) 게다가 Herbert는 전기가 없는 이 곳에서 면도날로 면도를 하는 Faber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Sein Grinsen, als er sieht, wie ich mich mit einer alten Klinge rasiere, weil es hier keinen Strom gibt und weil ich keinen Bart will, weil ich ja weiter muß — Seinerseits keinerlei Pläne !” (Hf, 167) Herbert는 이 곳에서 전혀 문명화되지 않은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다. 그는 삶의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생활하며 삶의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Faber는 기술이 없는 삶, 모험에 가득찬 삶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Herbert는 정착한지 8주만에 이 곳 원주민처럼 변화되어 버렸다.

Faber의 삶의 인식 전환의 결정은 Cuba의 Habana에서 이루어진다. Faber는 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결심을 한다: “Mein Entschluß, anders zu leben.” (H, 173) 특히 Faber는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어서 기쁨의 술잔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데서 삶의 기쁨을 느낀다: “Ein junger Mann, den zuerst für einen Zuhälter halte, besteht darauf, meinen Whisky zu zahlen, weil er Vater geworden ist.” (Hf, 174) 그 남자는 Faber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잔을 돌린다. 이 장면에서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있음을 기뻐한다: “Meine Lust, jetzt und hier zu sein-” (Hf, 174)

이러한 체험은 처음으로 뚜렷하게 변화된 삶의 인식을 반영한다. Habana 여행에서 Faber는 자신이 지향해왔던 미국식 생활 방식에 대해서 비판한다.

Mein Zorn auf Amerika! (...) The American Way of Life: Schon was sie essen und

30) Walter Schmitz: Max Frisch, S.83.

trinken, diese Bleichlinge, die nicht wissen, was Wein ist, diese Vitamin - Fresser, die kalten Tee trinken und Watte kauen, und nicht wissen, was Brot ist, dieses Coca-Cola-Volk, das ich nicht mehr ausstehen kann - Dabei lebe ich von ihrem Geld! (Hf, 175)

Cuba의 Habana는 기술산업 사회의 발전과 태고적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며 젊음과 아름다움의 도시이다: "Havana ist eine geglückte Kombination von europäischer Verfeinerung und primitiver Natur, eine Stadt der Jugend und der Schönheit."³¹⁾ Faber는 이 곳의 조화로움에 당황한다: "Alles wie verrückt." (Hf, 174) 한편으로 그는 이 곳에서 행복하다고 느낀다: "Ich hatte keinen besonderen Anlaß, glücklich zu sein, ich war es aber. Ich wußte, daß ich alles, was ich sehe, verlassen werde, aber nicht vergessen." (Hf, 180) Faber는 이 섬을 떠날 때 이제는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이며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찬양한다: "Ich preise das Leben!" (Hf, 181) 사진, 면도, 전기, 샤워 등은 문명과 기술의 소산이다. 그런데 Faber가 이제는 사진을 찍지 않겠다는 의지는 지금까지 그가 기술없는 삶을 믿지 않았던 자세로부터 완전히 전도된 모습이다.

- ich filme nichts mehr. Wozu! Hanna hat recht; nachher muß man es sich als Film ansehen, wenn es nicht mehr da ist, und es vergeht ja doch alles- (Hf, 182)

Cuba와의 작별은 Faber가 그 자신의 허상, 그의 옛 자아로부터 결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삶의 통찰과 죽음에 대한 예감이 서로 같은 비증으로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Faber의 삶의 기쁨에 대한 인식은 곧 죽음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는 죽음의 예감을 여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느낀다: "es ist eine heiße Nacht, ab und zu dusche, ich meinen Körper, der mich verläßt, (...) Mein Hirngespinnst: Magenkrebs." (Hf, 178)

Faber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과 Sabeth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Hanna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너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너를 받아들임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관계로서 표현된다. Faber는 나이든 Hanna의 모습에서 신부의 모습을 종종 본다: "Hanna ist dagewesen. Ich sagte ihr, sie sehe aus wie eine Braut. Hanna in Weiß!" (Hf, 182) 이러한 Faber의 표현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심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Faber는 허상을 통해서 죽음과 질병과 나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지양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자아와 현실이 없는 완전히 계산가능한 폐쇄된 허상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었다:

Es ist kein zufälliger Irrtum gewesen, sondern ein Irrtum, der zu mir gehört (?) wie mein Beruf, wie mein ganzes Leben sonst. Mein Irrtum; daß wir Techniker versuchen, ohne den Tod zu leben. (Hf, 170)

31) Alan D. Latta : Die Verwandlung des Lebens in eine Allegorie, in : Frischs Homo faber, S.88.

Faber의 이 보고문에는 “나에게 속한”이라는 말 다음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Faber 자신이 다시 한 번 의심하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Faber는 죽음에 대한 예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수술 몇시간 전에 쓴 일기에서 그의 삶의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Verfügung für Todesfall : alle Zeugnisse von mir wie Berichte, Briefe, Ringheftchen, sollen vernichtet werden, es stimmt nichts. Auf der Welt sein; im Licht sein. Irgendwo (wie der Alte neulich in Korinth) Esel treiben, unser Beruf! — aber vor allem: standhalten dem Licht, der Freude (wie unser Kind, als es sang) im Wissen, daß ich erlösche im Licht über Ginster, Asphalt und Meer, standhalten der Zeit, beziehungsweise Ewigkeit im Augenblick. Ewig sein; gewesen sein.” (Hf, 199)

여기서 Faber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운명에 대한 부정이 철폐되어 있다. 「Homo faber」의 주인공 Faber가 그의 허상의 사슬로부터 풀려나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에 대한 통찰을 얻고 삶을 잘못 살았다는 인식을 얻게 된다. Faber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서 진실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Summary

Max Frischs 「Homo faber」—Untersuchungen zur Struktur und Thematik

Kim Hi-yuol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Roman 「Homo faber」 von Max Frisch interpretiert. Der Roman wurde im Jahr 1957 veröffentlicht.

Frisch verarbeitet seine Eindrücke, die er während seines ersten Amerika-Aufenthaltes 1951/52 gewonnen hatte, in 「Homo faber」 zusätzlich noch solche von der Reise im Jahr 1956. Die Stoffe dieses Romans reichen bis in die 30er Jahre zurück. Deutlich sind die Spuren zuerkennen, die Frischs Biographie hinterlassen hat, vor allem die Beziehung zu seiner Geliebten "Käte", die seine erste Partnerin war.

Dieser Roman ist eine Ich-Erzählung. Der gibt sich laut Untertitel als "Bericht". Der Autor Frisch entwirft die fiktive Figur eines Berichterstatters, die an das mathematisch-naturwissenschaftlich geprägten Weltbild glaubt, und die aber den Fall eines antik anmutenden Schicksals an sich erlebt, das ihn fast zu Grunde richtet.

Ich-Erzähler als Allwissender berichtet eine Gegenwartshandlung, die im wesentlichen chronologisch abläuft. In der Gegenwartsgeschichte finden Rückwendungen in die Vergangenheit zur Klärung der kausalen Zusammenhänge des Gegenwartsgeschehens und Vorausdeutungen in die Zukunft statt. Walter Faber als Ich-Erzähler ist Träger der Haupthandlung.

Der Protagonist, Walter Faber berichtet über die letzten vier Monate seines Lebens. Die Aufzeichnungen Fabers gliedern sich in zwei Teile, wobei der erste Teil nach dem Tode Sabeths und der Begegnung mit Hanna von dem wegen Magenbeschwerden arbeitsunfähigen Faber im Hotelzimmer in einem Krankenhaus in Athen, in dem Sabeth starb und in dem Faber nun selbst auf seine Operation wartet. Die Romanhandlung von Anfang an steht im Schatten des Todes. Zu Beginn sieht Faber sein Gesicht im Spiegel. Er sieht weiß wie Wachs, scheußlich wie eine Leiche aus. So bewegt sich von Anfang an neben der ereignishaften, sichtbaren eine zweite, unsichtbare Handlung.

Die "erste Station" des Berichtes beginnt mit den Ereignissen vom Start in La Guardia. Walter ist in leitender Stellung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tätig und im Auftrag der Unesco-Entwicklungshilfes ständig unterwegs. So startet er am 1. April 1957 in New York

zu einem Flug nach Caracas, wo er die Montage von Turbinen zu kontrollieren hat. Infolge eines Motorendefektes landet das Flugzeug in der mexikanischen Wüste, Tamaulipas not. Faber macht die Bekanntschaft mit dem Düsseldorfer, Herbert. Der ist Bruder seines Freundes Joachim, der unterwegs ist, um nun in Guatemala wohnenden Joachim zu besuchen. Durch das Gespräch mit Herbert gerät Faber in die Ereignisse der Vergangenheit. Das geschieht allmählich und parallel zur fortschreitenden, gegenwärtigen Geschichte, in die sich die Erinnerungen und Vorausdeutungen einmischen.

Walter Faber liebte die Kunsthistorikerin Hanna Landsberg, eine Halbjüdin, als er Assistent an der Eidgenössischen Technischen Hochschule in Zürich war. Damals erwartete Hanna ein Kind von ihm, es kam zu keiner Heirat. Faber hörte nichts mehr von ihr, nachdem er nach Bagdad abgefahren war, um seine neue Berufsstellung anzunehmen.

Hanna nennt ihren Freund Homo faber, das ist der Mensch als Techniker. In der Tat ist die Technik für Walter Faber nicht ein Beruf, sondern eine Weise, die Welt zu sehen und zu verstehen. Er glaubt nicht an Fügung und Schicksal, er ist gewohnt mit den Formeln der Wahrscheinlichkeit zu rechnen. Er ist überzeugt, daß die Dinge so sind, wie er sie sieht, das heißt, daß er die Erscheinungswelt als objektiv gültige Wirklichkeit erkennt.

Der Techniker ist der Herr der Welt. Die Annullierung des Todes geschieht bei Faber durch die Aufhebung der Zeit als Vergängnis. Faber glaubt, daß Techniker das Erlebnis der Vergängnis überwinden und die Zeit zum technisch verfahrenen Element machen können. Dieses Bildnis besitzt für Faber eine selbstverständliche Richtigkeit und Gültigkeit. Es ist für ihn die Pflicht des vernünftig handelnden Menschen, der der Beherrscher der Natur ist. Faber vermag den primitiven Zustand der Natur nicht aushalten. Für ihn sind die Kunstwerke nichts anderes "als Vorfahren des Roboters." Techniker ist für Faber ein männlicher Beruf, und tatsächlich ist er einseitig männlicher Geist und Egoist. Er lebt ganz in seiner Arbeit und liebt das Alleinsein mit der Arbeit. Das unberechenbar Stimmungs- und Gefühlssein bei den Frauen ist ihm unerträglich. Er glaubt, daß der Mann sich als Herr der Welt sieht, die Frau nur als seinen Spiegel. Alle Frauen sind für ihn eigentlich gleich, nur Anna ist eine Frau, die anders als die anderen, die er gekannt hat, nicht zu vergleichen.

Zufälle treten im Bericht öfters auf. Der erste Zufall ist die Notlandung der Flugmaschine, welche zu einem Gespräch mit Herbert über Joachim und Hanna führt, woraus der völlig vernunftwidrige Entschluß Fabers zur Reise nach Guatemala entsteht. Der zweite Zufall ist sein Entscheid, daß er mit dem Schiff nach Paris reist, um seine amerikanische Freundin Ivy zu entfliehen. Da ist der zufälliger Fehler am Rasierapparat,

der verursacht, daß er den Anruf wegen seiner Schiffskarte noch erhält. Der dritte Zufall ist die Begegnung mit Sabeth. Auf dem Schiff fasziniert ihn eine junge Frau Sabeth. Sie ist das Kind der Jugendfreundin, die einst den tot aufgefundenen Joachim geheiratet hat. Damals wußte Faber, daß Hanna schwanger war, doch war ausgemacht, daß sie das Kind abtreiben lassen sollte. Das ist nicht geschehen, und so wird der Inzest zwischen Tochter und einem Vater möglich, der gar nicht weiß, daß er Vater ist. Fabers Fall ist Umkehrung des Ödipus-Motivs. Faber liebt Sabeth und führt sie ins Tod. Die Reise mit Schiff nach Paris erweist sich immer deutlicher als die eigene Tochter erweist und die Mutter dem Moribunden als weißhaarige Frau gegenübersteht.

Sabeths Tod ist die Folge eines Unfalls, an dem Faber, der mit ihr reist, direkt keine Schuld trägt. Sabeth ist von einer Schlange gebissen worden. Als Faber ihr helfen will, weicht sie vor ihm zurück, stürzt und erleidet eine Schädelverletzung, die später im Krankenhaus festgestellt wird. Hier schließt sich die erste Station. Das Bildnis und der unerschütterliche Glaube an die Technik machen Faber blind für die Wirklichkeit der Welt und ihre wirklichen Geschehensverläufe, machen ihn blind vor allem für das Wesen des Zufalls, der Unwahrscheinlichkeit, des Schicksals, des Todes.

Nach dem Tod Sabeths kehrt Faber nach New York zurück, versucht sich in die Arbeit zu stürzen. In dieser Stadt hat Faber etwas an Vertrauen auf sein Bildnis verloren, er zweifelt an den Gefühlen seiner Freunde und er fühlt sich fremd, im Grund nicht zu Haus. Er wird mitgeteilt, daß er dringend wieder nach Caracas abfliegen muß. Unterwegs besucht er Herbert in Guatemala. Bei seiner Ankunft auf der Tabakplantage verfällt Faber wieder in sein Bildnis, muß aber überrascht und enttäuscht feststellen, daß sich Herbert, der als weißer Europäer zu den Vertretern des technischen Menschentyps zu zählen ist, in einen Eingeborenen verwandelt hat.

Um die Maschine umzufliegen, der Aufenthalt auf Habana verstärkt mächtig seine Selbsterkenntnis. Er fühlt sich verwirrt, aber er ist glücklich. Er ist offen für Welt und Leben, lebt wirklich. Er filmt die Wirklichkeit nicht mehr, sondern nimmt sie mit allen Sinnen auf. Faber gewinnt ein neues Verstehen des Lebens und seiner Schönheit aus der Vergänglichkeit. Und daraus entsteht die erste Einsicht, daß er wirklich leben will. Aus dieser neuen Erfahrung entsteht der Wunsch, nochmals und anders zu leben. Faber gelangt zur Erkenntnis seines Irrtums und seiner Schuld, die er ganz auf sich nimmt, zur Erkenntnis, daß er falsch gelebt hat, und angesichts seines Todes gewinnt er eine Erkenntnis des wirklichen Lebens in der Zeit.

Die beide Stationen sind Phasen des allmählichen Selbsterkennens. Die erste Station

enthüllt die Tatsachen vom unerschütterten Standpunkt des Technikers aus. Er dient immer der Selbstverteidigung und als Beweis der eigenen Schuldlosigkeit. Wenn er ein Schuldgefühl erkennbar wird, pflegt er oft alles dem Zufall zuzuschreiben.

Die Aufzeichnungen der zweiten Station gliedern sich in zwei Teilen. Die erste Aufzeichnung als handschriftliche Tagebuchnotiz beschreibt die Erlebnisse im Athener Krankenhaus während der letzten Tage vor der Operation, die Wiederbegegnung mit Hanna, die ihre Vergangenheit reflektiert und die ihr hochmutigen, egoistischen Verhalten reut. Die zweite berichtet von der zweiten Reise nach Südamerika. Und nun zeigt es sich, daß diese zweite Reise eine Wiederholung der ersten ist. Dieselbe Reise wird noch einmal unternommen, zusätzlich Düsseldorf und seine Heimat Zürich. In dieser Wiederholung erscheinen die Vorgänge der Selbsterkenntnis Fabers.